東亞日報
夕刊
三月十四日(土)

對獨制裁는戰爭을誘發?
意見不一로會議停滯
佛白과英伊依然對立.
◇런던、로條約小委員會

【런던十三日發同盟】 로카르노條約關係國小委員會는 十三日午前十一時三十分부터 午後一時三十五分까지 … 佛白兩國의 對獨制裁에 對하야 …

【런던十三日發同盟】 로카르노條約關係國小委員會는 十三日午後五時十五分 …

小委員會內容

【런던十三日發同盟】 로카르노條約小委員會는 …

獨軍撤收를不肯하면
重大結果를誘致
駐英獨大使에最後的警告

【런던十三日發同盟】 이든外相은 十三日午後二時 外務省에 駐英獨逸大使 헷쉬氏를 招致하야 … 獨逸政府가 어디까지든지 非武裝地帶에서 軍隊를 撤收하지 안코 또 同地方에 要塞를 構築치 안는것을 承諾하여 …

一、따라서 獨逸政府는 進駐의 表徵的目的을 達成하기에 必要한 小部隊를 除하고 自發的으로 라인非武裝地帶에서 撤收하면 如何
一、다시 히틀러總統의 建設的提案에 對하야 交涉을하는 期間中 라인非武裝地帶駐屯部隊를 增加치 안흐며 또 同地方에 要塞를 構築치 안는것을 承諾하여 달라

英、緊急閣議
第二段의對策考慮

【런던十三日發同盟】 英國政府는 十三日午前十時부터 緊急閣議를 開하고 …

佛國의態度
幾分緩和?
에리오氏斡旋

【파리十四日發同盟】 에리오氏는 十三日 … 사로首相을 訪問 …

蘇聯의깨、떼、우軍
滿領島嶼占據

【新京十三日發同盟】 …

佛、對獨膺懲決定
小協商國及蘇聯、빨칸諸國과
共同戰線을構成

【런던十三日發同盟】 獨逸政府가 이든外相의 好意的示唆를 拒否하고 라인란드의 失地回復決意를 明瞭히한 結果 佛國代表部는 極度로 硬化하야 蘇聯政府、小協商及빨칸各國政府와 共同戰線을 펴고 斷乎獨逸政府膺懲의 强硬態度를 取하기로 決定하엿다고 解釋되어 大勢上英國政府에서도 到底히 抑止하기 어려운 情勢는 極度로 重大視하게되엇다

콤뮤니케發表

【런던十三日發同盟】 十三日의 로카르노條約關係國會議는 午前、午後二回의 會合을 …

봉쿠르佛無任相
英京에急行

【파리十三日發同盟】 佛國政府 …

라인駐兵三萬
獨宣傳省公表

【伯林十三日發同盟】 獨逸宣傳省에서는 十三日如左히 公表하엿다 라인란드駐屯의 軍隊는 이제 約三萬에 達하얏는데 …
一、步兵十九大隊
一、砲兵十三大隊
그리고 以前에는 라인란드 駐屯兵數는 十五萬에 達하엿다

對獨軟化는反對
蘇外相、巴里에서猛活動

【파리十三日發同盟】 蘇聯外相 리트비노프氏는 十三日午前九時 外務省에 플랑댕外相을 訪問하고 約一時間 …

獨逸政府에서
重要協議

【伯林十三日發同盟】 …

日滿軍發砲侵入
아河開墾工事를檢査?
蘇聯政府에서公表

【모스크바十三日發同盟】 蘇聯政府는 十三日 하바로프스크의 公報로 如左히 「去五日 아무르河附近 …

蘇聯、스次長의
書翰全文發表
=國境調查委員會=

【모스크바十三日發同盟】 蘇聯政府는 十三日午後 …

何氏太原에

【天津十三日發同盟】 共產軍의 山西侵入에 依하야 …

駐英獨逸大使
英外省을訪問
愼重注意喚起

【런던十三日發同盟】 駐英獨逸大使 헷쉬氏는 十三日午後五時卅五分 英國外務省을 訪問하고 …

駐英헷슈獨逸大使
表徵的撤退를通達?

【런던十三日發同盟】 …

노스키프스氏
英國防大臣
任命

【런던十三日發同盟】 …

外蒙이攻擊되는경우
即時軍事的으로援助
蘇聯、데陸相이言明

堀田公使에게
重要訓電
理事會動向을注視

【東京電話同盟】 …

事件責任者
懲戒程度
罰俸、譴責?

【東京電話同盟】 …

壯丁在營年限
佛國서延長

【파리十三日發同盟】 …

廣田外相의訓示
積極的自主外交와

【東京電話同盟】 廣田首相은 十四日午前十時 …

政府의三長官은
閣議參席不能
廣田首相通達

【東京電話同盟】 …

駐英大使後任
吉田茂氏內定

【東京電話同盟】 …

橫說竪說

▼外相으로서 …

今日夕刊八面

金 白 福 銀 金
株式會社
石福商店平壤出張所
平壤府 … 町
電話 一三一番
本店 東京市下谷區 …町

芳香原料 化粧品、飮料水、菓子、洋酒、醬油、各種用
染料、無害色素一般
佛國ローチエフイス 香料會社代理店
東華洋行

肝氣散
天佑堂藥房

東亞日報購讀請求所

新學期男女學生大募集
南大門自動車學校

財團法人 協成實業學校 商科工科 生徒募集

京城保育學校生徒募集

朝鮮總督府認可 京城自動車學校生徒募集

大邱信明女學校生徒募集

寧邊崇德學校男女生徒募集

測量講習所生徒募集

昔 나에 今 나에
效能で賣れる
ひふくや
上氣의 … 便秘 …

平壤 廣林商會

藥 御 問 屋
株式會社 新井藥房

ClibPDF - www.fastio.com

高利債에呻吟하는農家 二百卅二萬餘戶

農林局도農家本位의金融機關擴大强化

負債槪算二億三千萬圓

농업자금을 얻을길이없고 또한 얻는다할지라도 말할수없는 빗싼 리자의 고리채를 얻게되는 비참한농가를 위하야 총독부농림국농산과에서는 농가금융기관의 충실과 아울러 그의 확대강화책을 세워 오는十八일 개최되는 총독부 산업경제조사회(産業經濟調査會)에 제출하리라한다.

그외 구제방안으로는 [illegible] 농촌사회에 제출하야 충분한 검토를 한후 실시케되리라한다.

그외 착자는 현재 전조선에 분포된 소위 서민층의 금융기관이라는 금융조합에 조합되어잇으나 그는 벌서 [illegible] 매치된 중산계급이상의 금융기관으로 이용되고 잇어서 그야말로 무력한 세민층의 농가와의 인연은 거의 없고 되어 그를 이용하고잇는 농가는 전농가의 一, 二할에 불과하다고한다.

그리하야 현재 전조선의 농가 약 二百九十여만호의 약 八할되는 二百三十二만여호가 부채 농가인데 그의 대부분이 고리대금업자의 고리채(高利債)에 신음하고잇는중이라 한다.

그외 채무액(債務額)을 [illegible] 불명하나 농가一호 평균 약 [illegible]원으로 전부채농가의 부채총액은 二억三千二百三十만원에 달하리라는데 그들은 매월 三분내지 五분의 [illegible] 리자를 처서 살아가려면 빈약한 조선농가로서는 거의 헤어날 가망이 없으리라는 것이며 그같은 비참한 경우의 농가를 구하는 유일의 방법으로서는 누구나 리용할수잇는 농가의 금융기관을 확대하야 [illegible]

少婦突然失踪

拐引이냐 家出이냐?

집머진 고리채를 [illegible] 처지는 [illegible] 재미와 포근한 가정이 [illegible] 시성인 十八세 소부가 무단히 출가하야 [illegible] 그 남편이 [illegible] 경찰에 수색원을 제출하엿다. 시정은 경성부 [illegible] 결혼하고 六개월 아직 새살림 [illegible]

"間共" 大量死刑事件

高等法院에記錄廻附

◇公判開廷은 六月初旬頃

[illegible] 十八명의 사형수를 내게된 간도공산당사건의 피고 이동선(李東鮮) 주현갑(周現甲)등 二十六명중 二十二명이 복심판결에 불복하고 상고를하엿다 함은 [illegible] 복심법원에서는 十四일오전에 전피고의 기록을 고등법원으로 회부하게되엇다.

동법원에서는 이를 접수하는동시에 이사건은 히루(?)재판장이 심리하게되리라는데 담임검사는 사상검사로 [illegible] 결정되엇다하며 제一회 공판은 六월초순에 개정되리라고하는바 이 공판이 최후공판인만큼 세인의 비상한 주목을 끌고잇다.

"上海式·暴行에 "시울式"制裁

[illegible] 되지도 못한 "상해식"(上海式) 홈 함부로 부리다가 밧씨고혼 "서울"의 노염을 사서 필경서 울시제재를 받게되니 유치장으로

피해자의 고소에 의하야 가해자는 종로경찰서에 인치되어 상해죄로 취조를 받는중이다.

그는 며칠전에도 "상해식"이 [illegible]

"齊藤別莊" 轉賣又轉賣

【인천】 인천만국공원(萬國公園)의 후면에 올립하야 [illegible] 의 하나이든 재등별장(齋藤別莊)은 [illegible]

一三五 박해원(朴海遠)으로서 그안에 이중호(李中鎬)과 새살림을차린지 이제겨우 六개월인데 지난十二일밤에 무단히 집을 나간채 아직돌아오지 안는다고한다

때가 봄이라 혹시 어떤마수에 걸려 유인된것이나 아닌가하고 남편은 종로경찰서에 수색원을 제출하엿다고 한다.

[illegible] 카페에서 여급에게 주먹세례에 "여체의육한"으로 손찌를 준일도 있어서 종로의반거 [illegible] 남자하는친구라고한다.

無知한母性愛로 데여죽은乳兒

◇방이칩다고불을너무때닷

봄이 더디온것이나 [illegible] 바十二일저녁 [illegible] 지도부씨가 차다 [illegible] 고 자식을위해서 [illegible] 살뤗때고 잘들에 [illegible] 위하는 자식이데여죽엇다.

경성부 연지동(蓮池洞)二〇 [illegible] 의 어린애는 [illegible] 한다.

[illegible] 아래에 영아시체가잇다는것을 용산서에서는 즉시 서의경찰을동시켜 현장을 검시한결과 六개월가량된 조선아로서 아직 남녀의 분별도 가릴수없는 피부성이로 조선옷에 싸서내버렷다한다. 그런데 이것은 아마 불의의 행동에서생긴 결정을 남의이목을두려서 낙태시킨 것으로 판측하고 동서에서는범인을 엄탐주사중이라한다.

풀리는漢江에 浮沈하는兒屍

不義의結晶을墮胎?

【警察은 犯人을嚴探中】

電柱에서落傷 電氣工夫絶命

시외 영등포(永登浦)읍내 五四六의四 천원중삼(川原重森)(?)은 경성전기회사원으로서 十三일오후 二시三十분경 경성 용산출장소앞전주에서 공사를 하는중 잘못하야 떨어진것을 즉시 철도병원에서 응급수당을 가하려하엿으나 그때 벌서 사체이엿다 한다.

■……春雨·渡船에게 戒嚴解除……漢江 나룻배 交通開始

나리는 봄비에 풀리지는 한강 어름우에는 차디찬 염아의사체가 노여잇엇다. 十三일 오후三시경 한강인도교

朝鮮公債도激增 五億九千萬圓突破

公私負債에싸혀서사는現象

每戶當一百四十六圓

조선의 공채(公債)도 해마다증가하고 잇는데 최근 총독부에서 조사한바에의하면 국채(國債)가 四億九千八百八十三萬원을 필두로 도채(道債)가 六千四百七十九萬원, 부채(府債)가 一千九百六十一萬원, 읍면채(邑面債)七百四十二萬원으로 총계가 五億九千[illegible]百四十一萬원의 다수에 달하고잇다.

이것을 조선인구 두수(頭數)로보면 一인에二十八원이오 한 바왓다 [illegible] 를 물론하고 호별로 볼때에는 一호당 一百四十六원의 빗을지고잇는 현상이다.

이외에도 수리조합(水組) 채무가 一億八百八十[illegible]萬원이오 농민(農民)과 중소상공업자등의 채무를 총계한다하면 조선사람은 공사채(公私債)에 싸혀서 살고잇는 현상이라하지 아니할수없는 것이다.

螢雪의積功

各專門校卒業生

法專四十二人 朝鮮人優等三名

시내광화문통(光化門通)경성법학전문학교 제十四회 졸업식은금十四일오전十시에 동교강당에서 거행하엿는데 졸업생 총수五十명중에 조선인은 四十二명으로서우등생은 [illegible] 三군이고 三년개근생十명도 전부

■……法專朝鮮人卒業生一同

優等六名은朝鮮人

高商서 나온 十八名

숭이동(崇二洞)경성고등상업학교(京城高等商業學校)에서는 작十三일오전十시부터 동교 강당에서 제十六회 졸업증서 수여식을 거행하엿는데 이번졸업생은 총수九十一명중 조선인이 겨우十八인인바 우등졸업생六명은 전부 조선인이 점령하엿다한다.

◇卒業生氏名 [illegible]

◇優等生 白鋼洛 李仁永 [illegible]

◇高商優等卒業生 向하야 右로부터 白鋼洛、李仁永、閔丙旗、金商謙諸君

조선인인데 졸업생들의 취직하망 [illegible]

漣川의怪屍는 牛賊의所爲

피해자와 한동리의 사람

指名手配로犯人嚴査

【漣川】 연천군 미산면 마전리(麻田里) 노상에서 발견된 피시체사건은 十三일밤에 이르러 피살자의 신원이 판명되는동시에 이는 강도의 소위로 가해범인도 판명되엇다.

경기도 경찰부에서는 즉시 관하경찰서에 범인의 지명수배(指名手配)를 발하는동시에 연천서를총동원하야 수사중으로 범인체포는 이젠 시간문제라고 낙관하고잇다.

피살자는 장단군 군내면 정자리 윤[illegible]부(尹[illegible])로서 九일아침 七시경 모가 연천 마전리에 집엣을것이 잇다고 우차를 가지고 나가자고하야 함께 마전리로 떠나서 필경 길가동에게 피살된것이라고 한다.

범인은 그동리사람으로 근자에는 일정한주소가 없이 떠도라다니든 자인데 윤[illegible]의 소를 빼앗을작정으로 그러케 유인해가지고 마전리 길거리까지 이르러 때려죽인후 우차까지 끌고 도주한것이라한다.

범인은 피해자를 알아보지못하게 하느라고 시체의 얼굴을 짓이여노하서 아직까지 미궁에 빠질 뻔한것이나 범행은 직긔히 무모하야 범인체포는 시간문제라고 한다.

現職警官等 密輸團送局

判明된것만 萬餘圓

신의주경찰서(新義州警察署)의 현직경관으로 잇는 강병선(姜炳善)과 그의동생 강병순(姜炳淳)이가 금괴밀수출하의자로 경성본정서에 체포되어 취조중이라함은 수차보도한바어니와 동서에서는 그외공범이 또 잇지나 안흔가 하고 계속취조중이엇으나 一만원가량의 금괴밀수출한것을 자백하는외에는 별로 전개가되지안흠으로 우선 일단락을짓고 十四일 오전十시경 두사람을 신체구속으로 경성지방법원 검사국으로송치하엿다한다.

"鴨江鐵橋"팔아 保證金을詐取

現代 "봉이金선달"

【신의주】 압록강 철교를 팔아먹으려는 현대 "봉이 김선달"—

경성부 종로 六정목 이재덕(李在德)(四二)은 二월二十五일 신의주에 취직차로 왓으나 일이 여의치 아니하므로 한꾀를 내어 자기는 경성토목국기수로 압록강철도교를 새로 만드는데 감독을 고용할터이라고 노동자들을 속여 부외 마전동(麻田洞) 四〇八 최한준(崔漢俊)의 十二명으로부터 신청금三十원씩을 받아먹엇든것이 경찰에 발각되어 十二일 신의주경찰서에 붙들엇다.

春窮을노리는惡魔! 農村에人肉商跳梁

就職의甘餌로處女等을誘出

烏山서도 一名이被捉

금산군 금산면 상옥리(錦山郡錦山面上玉里) 一八 양경순(楊敬順)(二〇) 상리(錦山郡錦山面上里) 공화숙(孔化淑)(一七)의 세명은 [illegible] 구시헌(具時憲)(二九)이가 무시한경우 이용하야 그의 딸 공연이(孔連伊)(一七)를 서울로 다리고가서 공장에취식시켜주겟다고 감언이설로 유인해가지고 十三일에 당지를떠나 서경성으로오든 도중오산(烏山)부근서 아동경찰에 수상한일의를 받고서 조사를당하엿는데 그는경성에 다 취직시켜주겟다는것은 전연거짓 말이고 전기공연이를 경성부 초음정(京城府初音町)二一〇의二 김춘봉(金春峯)(四〇)의 부탁을 받고 전기와같은수단으로 창촌 처녀를 유인판매하라다가 미연에 발각된것이라 한다.

歐洲情勢惡化로 紋波에開催올림픽

라인랜드問題가結局禍根?

米國이漁夫의利를占할대

【로사누十三日發同盟】 히틀러總統의 라인렌드非武裝地帶侵入으로 歐洲의天地는 風雲이 急을告하야 各國이 모다 國防問題로 忙殺되어잇는 한편으로 올림픽反對論은 伯林올림픽大會에 대한 [illegible] 選手拒否說이 表面化하야 佛國의 不參加聲明에 비롯하야 英國、白耳義、伊太利等 各國의 選手不參加說도 擴頭하고 [illegible] 選手派遣을 保留할意向이잇으며 洋을 건너 米國에서는 예일大學이 純正한 아마추어問題로 올림픽不參加를 부르짓는等、大會開催가 危殆한 此際에 米國의라델피아市長으로부터 一九[illegible]年 올림픽大會는 伯林을中止하고 필라델피아에 開催하게하라는 提議를 일으키어 各方面의注目을 끌고잇다。

卄年前伯林大會도 大戰으로中止

大會開催와는無緣

【記者註】 獨逸과 올림픽과는 因緣이 어떤지엷다는것은 이미紹介한바잇거니와 前年까지에는 유대人排斥問題로 한동안 伯林올림픽이 열릴것인가안인가에 世間의 注目과輿論이놀더니 어옥고今年으로 當到한 此際에 라인렌드非武裝地帶에 侵入햇느니、이것이 로카르노條約을 破棄한것이니하야 다시伯林에 大會開催는자못觀難치안흔 事態에빠젓다。一九一六年에 伯林사에로열리든 第六回大會도 歐洲大戰으로 結局열지못하야 近代올림픽이 創設된지 四十年에 獨逸이 한번도열지못하게되엿든터이라 이번에 伯林이잇그러진다면 공교스럽게도 獨逸과 올림픽의 因緣이戰爭과 三角關係의 奇緣인것을 다시더느끼게하는 바잇다

培花女高合格者

中[illegible]植 金[illegible] 劉[illegible]山 金[illegible]道 李[illegible] 朴[illegible] 李[illegible]化 吳[illegible]根 [illegible] 李[illegible] 趙[illegible]玉 林[illegible]淑 崔[illegible] 朴[illegible]淑 崔[illegible] 柳[illegible]鉉 金[illegible] 金[illegible]玉 鄭[illegible] 文[illegible]淑 石小[illegible] 金[illegible]子 金[illegible]分 宋六[illegible] 鄭文心 朴[illegible]淑 朴[illegible]陽 金[illegible]玉 宋[illegible]淑 金[illegible]浩 徐[illegible]淑 [illegible] 申[illegible] 金[illegible] 吳[illegible]化 [illegible]

天氣豫報

◇豫報 京城地方 今夜[illegible] 明日은[illegible]

代金全額後拂 道師秘方 百補丸 不老長壽 强精回春 更少年藥
●藥効가廣告와다르면送金치마시요
●藥先送 代金全額後拂이니藥効가偉大、最種上、確實함은不問可知
●詳細規則二月十五日二月二十四日三月一日東亞日報平和堂廣告를보시요
京城堅志洞 平和堂 電光六六二二

東光醫院 內科 外科 花柳科 皮膚科 レントゲン科 血液檢査 大小便檢査 無料

印入タオル 記念品用 賞品用 優勝旗 校旗 團旗 天祥印 東洋染織捺染部

參謀本部陸地測量部發行 五万分一地圖販賣元 東亞商會 京城公平洞

向上女子實業學校 生徒募集 募集人員 五〇名 試驗期日 三月三十一日 締切 三月二十九日까지

學生募集 新學期四月一日開始 學費大特典 金六十圓也 東亞自動車學校

金銀 地金分析 賣買 杉山商會 高價買入 京城明治町 杉山商會

◎社員募集 有給社員募集하오니 履歷書를郵便으로보내주시요 面談又는電話는謝絶합니다 京城西大門入口 神崎神聖堂藥品直輸入株式會社

一回効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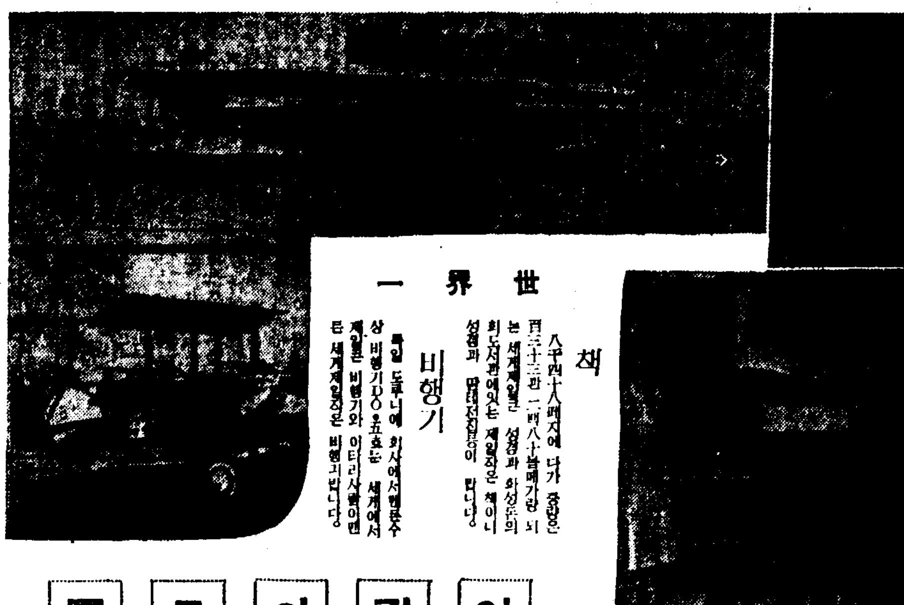
ネオチリン 림질

恩給 [illegible]

募集!! 少年店員入用!! 募集

自轉車 ツヅキ陳列所

어린이日曜



世界一

책

八千四十八페지에 다가 중량은 二百二十三관 一백八十근메가량 되는 세계제일큰 성경과 화성돈의 회도서관에잇는 제일작은 책이니 성경과 명태전집등이 랍니다.

비행기

독일 도루니에 회사에서 만든 수상 비행기DO五호는 세계에서 제일큰 비행기와 이타리사람이만든 세계제일작은 비행기랍니다.

어린이新聞

어린사람을사랑하시든 고(영국)황제폐하

얼마전에 전영국의 가장좋은 속에서 죠지폐하五세는 사람의 오로 어렵수없이 돌아가시게되엇는데 폐하가 생존해게실때 어린사람들을 특히사랑하셧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바이지마는 六일오전 도서관에서 일보는이와 소학교생이 이야기한것을 들은영국국민 들은 감격에넘처며 세상소학생 들을 사모하게되엇답니다.

중앙 도서관에서일보는 모스햇 토씨는 요새라디오로 전국소학생에게 「고죠지폐하를 회억하면서」 라는 문제로 죠지폐하께서얼마나 어린사람들을 사랑하셧으며 특히 빈한사람들을 우등생으로 선택해서친히궁전으로 불러서상을 주섯다는이야기가 끝난뒤에 친히그때에 각지방소학생중에서 남녀학생 영광을 받게된 학생이나와서그때 그광경을 이야기하엿읍니다. 「내가 황제폐하의서재에 안내를받아서 드러간즉 폐하께서는 스토부 앞에 웃는얼골로 서서서 나를 보시더니 악수를하시며 친한 친구를 만난것 처럼 이야기를 하시더니 성경책 하나를 거내서내게 주시면서 하시는 말슴이 이것을 네게 주기전에 내가할 이야기가 잇다 내가꼭 너와갑은 나이를 먹엇을때 우리 할머니 되시는 비토리아 여왕께서 내게 성경책을 하나를 주시면서 매일 밤 자기전에 꼭 한장씩읽오라고 하시기에 나는 잊지안코 오늘까지 읽엇느니라 만일 너도 이것을 일생을 두고 지켜간다면 나쯤 되엇을때 생각하면 결코 손이 아니엇다는것으로 알리라 이로부터 내장래는 九萬리와 같으니 이것을 꼭 실행해라 하시면서 폐하께서는 어린애처럼 유쾌하게 우스셧습니다 나도 그때는 너머감격하여 어쩔줄을 모르고 성경을 가슴에 안은채로 불러나왓든것입니다」 라고 감격에 넘치는 목소리로 방송이어 듣는이는 누구나 눈물을 흘렸답니다.

강삭에보내 이자의편지

시카코어떤 경찰서에 여자의글시로 편지가왓는데 퍽똘똘한 어린사람의편지로 ◆순사님 시카고 컴뿐, 아빼五二一八번 二十一번지로 오서서 좀잡어주시오

童劇 이것네 이것네 【全一幕】

白楊村

◎때 어느따뜻한봄날
◎곳 잔디밭
◎나오는사람과 그차림차림
▲꽃님(가) 머리에 큰꽃을이고 양손에도 꽃을들고 노랑저고리 예피랑치마를 입엇다. (금순이)
▲꽃님(나) 꽃만다르고똑같다 (옥순이)
▲꽃님(다) 또꽃만다르고똑같다 (복순이)
▲벌님 세롱바지저고리를 입고 나래를 달고 손에는 실예끼장 분하는 장난감을 가젓다. (금봉이)
▲나비님 힌옷에 흰나래를달엇다. (옥봉이)
▲작난꾸러이에 양복을입엇다. (복봉이)
▲옹감님 한무후박에 수염이별 예가달것간고 갓을쓰고 장옷을 불엇으며 집팽이를 집엇다. (수봉이)
▲바람님 얼골까지새까마타. 상문이에 큰무채를 곳앗다. 만갑이)
▲종달새님 젊엇다 꼿다한는 나래를달고 머리에 새대가리같엇 살까지 폭쓰고 입속에 오가올당엇다. (만순이)
◎놀꽃 등경서를 그린마음 느리현그반이다. 막이연리면 꽃님 (가)、(나)、(다)、가목감은사 이를 무고벌려서서 무손의꽃을 칼궁치키지허리에다붙이고그나 머지를 한들한들 흔들고섯다.
바람님 (바른쪽에서 공문이부터 드러와휘둘느며 쇄-- 쇄- 쇄--(소리를 점점높이며지나 나간다)

꽃님(가) (바람이가까이오자 놀라여얼골을 좌우로 근덩근덩하며 아이구 아이구내허리- (노래)

꽃님(나) (그뒤를따라근덩그리며) 아이구아이구내허리! (노래)

꽃님(다) (또그뒤를 따라근덩거리며)아이구 아이구 내허리! (노래)

꽃님(다같이) 아야야 내허리 부러저! 에개개 내허리 부러저! 아구구 내허리 부러저!

종달새님 (꽃님들의 노래중가운데서 부러없안의호강으로 지저거며 조롱잇다 빠르게 쑤-그 드러와 꽃님들을 한바퀴돌고나서 가운데 꽃님의밑에가 나래를 접으며 쪼그리고앉는다) 비베배배!꽃님들이 노래를게 속하개될때부터는 그노래에 마취 지저거며 꽃님들 사이를 도라니다다

꽃님(가) (여섯이 근덩거리며) 이느무 바람님 어디봐!

꽃님(나) (갈이그다당들이어)요 느무 바람님 어디봐!

꽃님(다) (그뒤를이어) 깨껑이 바람님 어디봐!

꽃님(다같이) 내허리 부질러 보아라!

엄마게 일러서 경치지! 아빠게 고해서 혼내지!

바람님 (아까보다더웃세계 쇄--!쇄--!쇄--(또공운이 부터 들어온다)

꽃님(다) (바람이오자 더욱근덩거리며 우는듯이)아이구 아이구 무서워!

꽃님(나) (그뒤를이어) 아이구 무서워!

종달새님 (무서서(꽃님)나의뒤 에가 숨어서 가만이 내다본다)

꽃님(가) (그뒤를이어) 아이구 무서워!

바람님 (나가러다시한번 돌처서서 더웃세게 쇄쇄쇄--!쇄--!쇄--!

꽃님(다같이) (더욱우는상으로) 안그래 안그래 안그래!

안일러 안일러 안일러!

안고해 안고해 안고해!

바람님 (나가버린다)

종달새님 (바람님가족을 향하야 욕어니하는사) 비비비--!

(종달새님은 또 꽃님들 사이를 나비님 (꽃님가의뒤로가숨으며)

어수다)

종달새님 (바람님가족을 향하야 내엇고 맛엇겟다 흥, 흥, 딱 가요! 나비님내게두 좀오계!

꽃님(다) (종달새님을보고 저리 남은조해서 안해본다나-

꽃님(나) 호오호 괜찮아: 종달새 나비님(손구락질하며 벌레인다)

꽃님(나) 웨! 웨?

거글레다)

종달새님들보고 무서하며 (나비님 아버지없어 억이 니리려케살지

꽃님(나) 엄마쏘엇으면 아버지 업 ―(꽃님(나)제로가 도라가섯서 나비님 우리엄마가 도라가섯서

꽃님(가)(결에온나비님에게 다비 님 웨그러케 서러워?

처다 본다)

종달새님 (노래를 끈치고 나비님 을 고개를 깨웃둥 깨웃둥하며

저꽃님으로 나러더니다)

나비님 훨훨날려 드러와 이꽃님 사이)

노래에마취 근덩그리기만하다

롤이나니며 꽃님들을 부르는노 래를 부르고 꽃님들은 그저그

꽃님 나좀살려주지요

종달새님 해해해! 출출하는김 에 잔벗나 손틀내밀어 나비님 을 잡으려고한다)

꽃님(가) (끈이 잠탁 나서 종달 새님들 노리다 손의 꽃송이로 갈기며) 에이이 목숨노아!그 무서운바람녀석이 왓을때 감처 준 은혜두 모르구…

꽃님(나) 그러케만이지 저보다 약하다구 마잡아먹으려구해!

(때리려구하니도자간다)

종달새님 호호호!그래두난잡어 먹어야겟걸? 배가곱프신걸어 ―캐 : 나비님을 쪼차간다)

(도망가며) 아버구머니

종달새님 아이구선해!고로케 리니까 가려운대가 안가려데

혼 자기 앞으로 옹때마 니, 종달새님을 때린다)

(꽃아다니며 조금다사이)

작난꾸러이에(살금살금기어오며) 야―종달새봐라!(가서덥친다)

종달새님 (잡힌몸이야) 아어구 머니!(나래를 버리고 쓰 살갑이 도망간다)

빗갈침

빗갈을 치실때 먼저생각 할것은 눈모를 그렷다면 그동모의 복장이 엇더한 의대소눈(眼) 코(鼻)눈섭(眉)을 잘생각하거나 사진을 그렷으면 사진을보고 잘보아서 볼수잇는대로 그사람의 측장을 드러내도록 세심을 해야한니다. 뒤모양이나 모자쓴데 도주의할것이오 또나무접을 잘이용해서

그려서올여내는법

대체절을한 넓판지 八미리쯤 두터운판에다가 무엇이든지 좋습니다. 자긔얼굴 만화도조코 동모의얼굴을 사생한것도 조흐니 정성스럽게 잘그려가지고 보통학교에서 수공에쓰는 실톱(糸鋸)으로 올려냅니다. 인형의 신장(身長)은 九세치나 十세치쯤이 적당합니다.

누구든지맨들수잇는 나무 인형깍는법

시험 끝난뒤에 해보시오

세심하게되면 참재미잇는 인형이될니다.

밋바침

인형이 다되거든 밋바침을 돌여내고 남은 넓판지를 가지고 폭(幅)四세치반 장(長)三세치쯤되게버혀 중앙에다가 못을박고 인형밑에다가 송곳으로 구멍을 뚫어서 세우도록 합니다. (사진속 인형은 며칠에말을 모방할것)

원숭이 잡는법

宋鐵利

원숭이는 사람의 흉내를 썩잘 내는것을 이용하야 원숭이를 아주손쉽고 우습게잡는법이 한가지 잇답니다. 먼저 一人자 토인(土人)들이 서너명 짝을지어 여러켜레의 「도레기」(가죽으로 만든 크고 무거운신)와 한통이쯤되는 술과 들을 따로따로 산속으로 가거든요.

가서 적당한곳을 택하야 지고 온것들을 내려노코 죽―둘러앉어서 통을 잡에따라서 서로 주거니 받거니 죄―다 마신다음 「도레기」를 한켜레씩 끌을 꿍꿍 워어신습니다. 그리고는 서로 손에손을 맛잡고 노래를 부르면서 춤을 춥니다. 한참동안 그러다가 도레기를 버서노코 잔과 술도 그대로 두고 집으로 돌아가는것처럼 얼마쯤가다가 좋은곳에 숨어서 엿보고 잇습니다. 그러자 이때엇 숲속에서 토인들이 하든 양을 하나 빼노치안코 자세히 보고잇든 수많은 원숭이들이 욱―몰녀나와서 앗가 토인들이 하든시대로 술을진에따라 몰녀가며마시고나서 도레기를 꿍―꿍 워어신고 서로손을 맛잡고 뛰여나옵니다. 자―사람들은 원숭이들이 얼마나 걷나하겟습니가? 도망질 치려고 막우덤비지 안켓습니가? 허나 할수가 잇어야지요. 제일첫재 발에 크고무거운도레기가 신켜잇서 거동주가 업지요 그저 엎치락 뒤치락 곤드박질만 할뿐이지요. 이판에 토인들이 달녀들어서 한마리식 꿍꿍 얽은다음 잘머지고 도라가서 길을들인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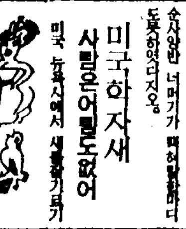
동요 맹꽁이

崔守福

맹꽁 맹꽁
언못에두 맹꽁
앞논에두 맹꽁
고막구 맹꽁
맹맹 맹자알
꽁꽁 꽁자알
짜는밤 싶어가두
쉬지안코 우는구나

미국하자새 사람은어림도없어

미국 뉴욕시에서 새롭장거리기로 유명한 펜기게미이라는 사람은 노래도하고 이야기도하고 춤도추는 한둘사람의 말을 표해이녀석이어떠케 민살스럽게 구는지 순사양반 너머가기 때어빈하다 돌나요......」도못하엿다지오.



오는것은 엄청 일본을 그린 거 명은 제재에가 기뻐하면서 「아저씨 범서와주서서요 우리집에는잡화가없어서 그렇습니다 영화사내내모변답니다.

그다음 하리궁롱 룩군인은 곳체서지는 하리궁이라고 합니다 라는말밖에 못해주인이 엄청으로 가르치는 중에 잇는데 목소리만을 뚜렷하게 한답니다.

그다음 때이군은 말한 하는것이아니라 회파람도 불고이야기도 하면서 주인의 손에서춤도춘답니다.

영화조하하는개

영화를 세상에도 그러케 조하하는개가 미국 오하요주 써시나치시에 잇다는데 무엇을조하하는고하니 「미키 마우스」 사진이라야 잘본다한자고 며칠하여도 보고 잇다는것입니다.

이개는 테리아종인데 너머미키 마우스를 조하하는고로 주인이 「잇치노라고 일홈을 갈어버렷드니 외기양양합니다.

三년전 주인에게 끌려 영화를 보러갓을때 한번미키 마우스를 본것이 그때부터 홀려서 다른사진은 암만보여도 재미없어하는것이 보이는데 아모리유명한 여배우들이나온데도 소용없고 미키가 한번스크린에나타나면 갑자기 일어나서 정적하고 귀를 쫑긋하고 재미잇게 가지고 보고 오면 가치 흥을 주며 야단을 하다가도하면 미키가없어지면 자버리고만답니다.

나일오르기

[illegible]

돌돌이

李無影 作 鄭玄雄 畵

마굴(三) 二九

똘똘이와 수동이의 억굴에서 피가 철철흐르는것을 보던 거지아이들은 모두 똘똘이의 귀에다 대구

「그러지말구 너두 돈벌이를 해 이것아. 그러면 돈두 벌구 밥잘 먹구 매두 안 맞구 오죽조흐냐.」

하고 속사깁니다.

그래두 똘똘이는 고개를 내둘릿습니다.

「안되겟다。이런놈들은 죽어버려야지。그대루 놔두면 우리가 되려 잡혀가서 콩밥을 먹을것이다.」

어른 거지는 하로밤에 쇠꼬챙이를 달구라고 시켯습니다. 그리하야 쇠꼬챙이가 시뻘거케 달기를 기다리더니 쇠꼬챙이라는 제일 큰 거지아이를 보고

「얘 이놈아. 이놈에 딱을 가어라。그러구 이 쇠꼬챙이루 마지어라!」

하고 소리를 질럿습니다.

눈앞에는 시뻘거케 달은 쇠꼬챙이에서 기가 무럭무럭 납니다. 인지는 죽거나 그러찮으면 도적질을 해야만 하게 되엇읍니다. 똘똘이는 죽는한이 잇더라도 도적질은 안하고 하고 싶지는 안햇읍니다。그러나 도적질을 안하다면 쇠꼬챙이를 퍼퍼 찍는시 죽일것이니다.

「자 이놈아! 어서 찍리라!」

그 아마갈은 사람은 몃가지로 쇠꼬챙이를 후러 갈것습니다。쇠뻥이는 그래도 눈만 깜박 깜박 하고잇더니

「이리 주십시요」

하고 새빨간 쇠꼬챙이를 하루에서 쏙 빼가지고 번덕일어나더니 어른 거지앞으로 해 달려들면서

「이놈아 이것으루 사람을 찍으라면 죽이란 말이지。나두 네놈 한테 매를 만히 맛앗지만 너때문에 내가 나쁜짓한것이 분하다。이놈아 이쇠꼬쟁이로 네놈의 눈좀빼자!」

하고 덤비니까 그 아마갈이 기운센 사람은 꼼작 못햇습니다。

「자 이놈아 꼼작하면 눈을 퍼찔를테다!」

하고는 아이들한데 똘똘이와 수동이의 결박한 끈을 끌러주게 햇습니다。그러자 똘똘이와 수동이는 덤벼서 그놈의 다리와 팔을 꼭 꼭 묵어노코

「똘똘아。우리는 인저 그만 가자!」

이리하야 그들은 한꺼번에 우―몰려서 그마굴을 벗어낫습니다.

革靴一足으로 萬年筆一個씩 進呈

定價 一圓의 萬年筆 五萬本 進呈

草靴 大爆發的 大景品付

先エナメル付一足三十錢高

高級紳士禮服用總草靴 短型靴 四圓五十錢

中學生專用 指定草靴 一足 三圓五十錢

女學用總草靴 大人一足 二圓七十錢 小人一足 二圓三十錢

晴雨經濟靴 一足 金二圓

晴雨經濟 女學生靴 一足 一圓五十錢

流行尖端 總草フレン型 四圓二十錢

フレンチ型短靴 三圓七十錢

鬼三枚底 短靴 一足 三圓五十錢 鬼三枚編上靴 一足 三圓九十錢

鬼三枚底 護革學生靴 一足 三圓五十錢 (耐久 二ケ年以上)

靑年肌綿 總草靴

絶對全責任付、不向返金品替自由 大産―大販―市價の半價

名古屋市東區千種町三(古井坂電停前) 合資會社 金城商會·營業部 電話東五二一(振替名古屋一七九)

學藝

人間의有限性問題 (上)
—하이덱가의實存哲學을中心하야—
朴如涯

以上에서 現存在의 生存과 事實性이 現存在의 存在를 構成함을 보앗으나 우리는 다시 나아가 考察하여보건대 現存在의 事實的實存은 다만 投企되어진 可能存在에 끄치지안코 現存在는 또한 이미 交渉(配慮)하는 世界안에 喪失하여잇는것이다. 即世界內部에서 만나는 存在者에 頹落(Verfallen)하여잇는것이다. 이같이 「頹落하여잇다」는것이 事實的實存에 本質的으로 包含되어잇는것이다. 그러므로 「頹落」은 生存性 事實性과같이 現存在의 存在構造의 一契機를 形成하는 現存在의 存在論的性格이다.

上述한 現存在의 存在構造의 三契機인 生存性, 事實性, 頹落性은 各各 分離하여잇는것이 아니라 그것들은 도리혀 根源的統一的全體를 構成하는것이다. 따라서 現存在의 存在構造의 形式的實存論的全體性은 即 「現存在의 存在는 世界內部的存在者의 옆에 잇는것으로서 이미 世界안에 存在함에 잇어서 自己를 先驅하는것」을 意味하게된다. 이와같은 現存在의 存在樣式을 하이덱가는 「關心(Sorge)」이라고 불렀다. 關心은 意慾이라든가 衝動같은 心理學的現象을 指示하는것이 아니라 도리혀 現存在의 存在가 關心인까닭에 意慾, 衝動같은 現象이 成立할수잇는것이다. 世界內存在인 現存在의 存在가 關心인까닭에 交渉世界안에 存在한 用在者(Zuhandenes)에 向하는 關心을 配慮(Besorgen)이라고하며 他人에게向한 關心을 顧慮(Fürsorge)이라고 부르는것이다.

× × ×

以上에서 우리는 現存在(人間)의 存在構造를 生存性, 事實性, 頹落性의 三契機에잇어서 吟味하여 왓으며 三契機의 根源的統一이 關心인것을 알엇다. 그런데 日常的으로는 現存在는 世界內部的存在者에 頹落하여잇는것이다. 即 「世界」에 頹落的으로 잇는 限 日常的으로는 人間은 用在者에 對하야는 「配慮」하는것이며 他人에 對하야는 「顧慮」하는것이다. 配慮한다든가 顧慮한다든가 하는것은 [illegible] 如斯히 日常的으로는 配慮的으로 말미암아 現存在는 周圍의 事物에게 마음을 奪取하고 또는 顧慮的으로 말미암아 他人에게 亦是 自己의 마음이 奪取되어지고잇는것이다. 換言하면 自己存在에잇어서 自己存在自身을 理解하는 現存人間은 日常的으로는 本來의 自己로서 生存하는것이 아니라 「世人」(Das Man)의 自己로서 生存하여 잇는것이다. 世人의 自己로서의 日常的人間存在는 自己를 自己로서 把持하지 하니하는 非本來的存在樣式을 取하게 되는것이며 따라서 非本來性에 잇어서의 現存人間은 自然히 空談, 好奇心, 曖昧性等에 支配되는것이다.

그러면 現存人間의 本來的存在樣式이란 어떠한것인가. 우리는 여기에서 現存人間의 存在를 根源的으로 存在學的 硏究에 잇어서 把握하지안흐면 안된다. 이러한 根源的存在學的 硏究는 現存在의 本來性과 全體性을 [illegible] 決되어질것이다. 우리는여기에서 먼저로 現存在의 全體性을 問題삼아 이와같이 現存在의 全體性을 問하는데서 自然히 吾人의 面前에 問題化되는 人間의 有限性은 把握되어질것이며 따라서 現存人間의 本來的存在樣式이 무엇인가도 究明되어지리라고 안다.

×

人間의 全體性을 우리는 如何히 規定할것인가. 人間의 全體性은 死의問題에 必然的으로 關聯되어잇느니만큼 死의問題를 究明함에서 人間의 全體性은 規定되어질것이며 따라서 人間의 有限性問題도 解決되어질것이다.

그러면 大體 死란무엇이냐. 우리는 이곳에서 우리의死가무엇인가를 規定하여야하겟다.

死는 언제나 日常的人間에게는 不安과 恐怖의 對象인까닭에 우리는 死를 人生生活의 最終이라는 單純히 規定해버리고 死의 問題를 論하기를 逃避하는것이다.

死는 實로人生生活의 破壞物이요 不安物임에도不拘하고 吾人은 때로 吾人自身의死를 自己가 引受하지안흐면안되는것이다.

「存在와時間」(二四〇頁)

他人이 나를代身하야 나의死를 引受할수도 없는것이며 내가他人을 代身하야 他人自身의死를 引受할수도 到底히 不可能한일이다. 他人의死의 現象을 心理學的으로 體驗할수는 잇어도 「죽엄」自體를 體驗할수는 絶對不可能한 일이다. 死는 어데까지든지 現存在의 存在可能이다. 現存在의 存在學的構造의 一契機인 生存性에 잇어서 人間은 自己의 存在可能으로서의 「죽엄」을 自己自身이 理解하는것이다. 이와같이 現存人間은 本來的으로 自己의 存在에 잇어서 將次 自己의 死가 到來할것을 理解하는까닭에 日常的으로는 不安의 對象인 死에서 逃避하야 世界內部의 存在者에 頹落하야 非本來的存在樣式인 「世人」으로서 生存하고잇는것이다. 死가 人生生活의 最終이라면 우리는 우리의 最後인

人間의 全體性을 如何히 把握할것인가. 우리는 死를 「죽엄에로의 存在」라고 規定함에서 人間의 全體性을 [illegible] 「最後에로의 存在」는 [illegible] 死에로의 存在라는 存在樣式이 이미 現存在의 存在에 잇어서 自己의 存在可能을 理解하는 生存性을 所有하고 잇는 까닭이다. 「死에로의 存在」로서의 人間의 死는 生物學的으로 解釋된 死가 아니라 明者親人이다. 死는 實로 現存人間의 한 存在可能으로서 그것은 未知의 神祕境에 잇는 것이 아니라 現存人間의 目前에 잇는 [co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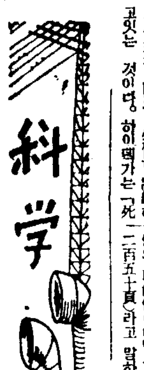
色彩로나타내는피아노의音律
(海)(外)(學)(藝)(뉴)(ー)(스)

위스콘신大學의 美學敎授인 바—나 敎授는 音響과 色彩의 關係를 美學的으로 考察하야 一種의 피아노를 完成하엿다. 이 피아노는 音을 내는 外에 여러가지 色을 내는 五十本의 스펙트럼燈을 裝置하야 音의 種類와 그 强弱에 따라 光을 電光上에 展開시켜 音에 依한 氣分을 色에 依하야 내게하려는것인데 이 光은 音의 强弱에 따라 强弱의 程度를 나타내게 하엿으므로 그 色彩를 보고잇으면 自然그 音樂의 氣分이 그대로 나타나는것이다. 即 赤色은 激昂하는때 오렌지 色은 따뜻하고 生氣잇는 場面을 보여주고 黃色은 快活하고 病的이 아닌때에 나타나고 綠色은 平穩한 氣分을 指摘하고 靑色은 冷靜하고 厚重한것 紫色은 悲哀한 音을 보이고 赤紫는 思慕하는 音을 보이는것으로 하엿다. 色에 依하야 音律의 變化를 알수잇는 피아노는 將來室內의 色彩에 依한 快感으로써 音樂의 氣分을 내려는 方面으로 進展될 期待라고도 생각된다

新型쳅펠린航空船大西洋橫斷

【伯林發同盟】世界에자랑하는獨逸의 新型쳅펠린 航空船 L. N-129號는 이즈음거이 艤裝을 마치어 進空式을 行하게 되엇는데 쳅펠린會社의 社長이요 世界航空船建設界의 巨頭인 에케나—博士는 進空式後 LZ-129號를 操縱하야 北大西洋을 橫斷, 米國뉴-자—시州레크하스트까지의 壯擧를 敢行할것을 最近發表하엿다. 이 쳅펠린船의 渡米는 世界中에서 米國에서만 生産하는 輕量까스헤리움을 補給하기 爲한것으로 同會社의 要求에 對하야 米國海軍省에서도 스완손長官의 名義로 이번에 限하야 쳅펠린船의 米國飛來及레크하스트及플로리다州마이아미의 繫留塔使用을 許可할것을 回答하엿다 壯圖는 大體五月下旬乃至六月上旬에 斷行할 모양인데 同航空船의 大西洋橫斷은 北大西洋에잇어서의 定期空路開拓에 對하야 적지안흔貢獻이 잇을것으로 各方面의 注目의的이되어잇다. 그러고 헤리움을 補給하기까지는不燃燒性水素를使用하리라한다

非常時의科學



海上의空中戰
航空母艦의技能에對하야

世界各國은 空軍擴充에 多額의 費用을 들이고잇다 最近의 뉴스에 依하면 어떠케하여서 하나라도 巡洋艦, 航空母艦에改造, 各戰艦의 搭載機의 倍加, 小型優秀戰鬪機等의 搭載數이다. 海上攻擊의 主力은 航空母艦이것은 만한必要가 없다 그러므로 바다를 가진나라로 航空母艦을 안가진 나라가 없다.

洋上의 戰鬪에서 航空機의 活躍은 어느때는 戰鬪艦以上의 重大한役割을 할때가 만타 그러케되는 航空母艦에만 飛行機를 搭載할수 가없게된다. 그래서 各戰艦에도 飛行機를 두게된것이다. 그러면 海上에서의 攻擊力의 倍加되엇다. 그것은 바다에서의 攻擊力의 倍加이다. 擴充을 計劃하고잇는 問題가 있다. 約과 法規制限에 넘치지안케 强化기에 各國이 軍縮이나 聯盟의 規定을 張樂하 故障할수가 없지마는 攻擊隊 伊國이 軍艦飛行艇隊의 擴張計劃, 蘇國의 파라슈트 步兵 個年計劃, 米國이 戰鬪機搭載五千噸 도 [illegible]

다시 巡洋艦級의 戰艦은 必要이지마는 一個의巡洋艦보다 一個의航空母艦이 十倍나 戰力을 갖게되고 攻擊力도 그만큼 가지게 된다면 이것이有效하다고하야 改造하게된 것이다.

日本의 「赤城」「加賀」等은 米國의 「사라토가」「렉싱톤」同様으로 巡洋艦을 改造한것이다.

여러가지로 硏究의 結果 最初부터 航空母艦으로 建造한것은 日本서는 「龍驤」米國에서는 「렌저」等이다. 艦名의 發音이 偶然히 恰似한것이 이상한일이다.

× ×

各國聯爭하는 「航空巡洋艦」이라는것은 一萬噸級의 巡洋艦兼航空母艦이라는것이다. 이것은 軍縮 聯盟條約의 制限以內로 飛行機가 着艦할수잇는 飛行甲板을 가진 航空母艦을 말하는것이다.

例를들면 米國은 巡洋艦을 가질수잇는 限度 即 百噸의 巡洋艦의 도합의 四分一 即八萬噸은 이를 巡洋艦이나 「航空巡洋艦」을 建造하여도 조케되어잇다.

여기서 「萬噸의 「航空巡洋艦」은 새로 建造되엇다고하면 飛行機는 掃除艦乘할수잇고 그 攻擊力은 空軍艦것이다. 一方그대신 大砲는 二門이나 三門은 減할수잇으나 攻擊, 偵察, 戰鬪機, 升降裝置를 실은 軍艦의 威力은 놀날만한것이고 戰鬪艦에 向하야 何等遜色이 없다.

여기에 各國이 關心하는理由가 잇다.

飛行甲板을 갖지안는 戰艦에는 「대로-이라는 起重機를 보통것이 잇어서 水上機를 海面에 달어내리고 올리고해서 拆載하거나 「카다필트」라는것으로 飛出하는 裝置를 하고잇다.

「카다필트」가 發明된後 戰艦에는 飛行機가 搭載케되엇다. 即甲板도 起重機도 必要없는까닭에 近來에는 潛水艦에도 飛行機를 실을수잇다.

× ×

海上航空戰의 主力艦이 如何히해서 戰鬪하는가를 알기前에 그構造와 內容을 알必要가잇다. 테크쳘파 航空母艦은 平板甲板이 二層이잇다. 前者는 甲板이 平面으로되어 잇지마는 艦의 어느一個의 舷側에 위치하야 大砲와 마스트가 甲板에 나와 잇는데 이것은 高角砲이다.

兩者의 「二層」에는 艦의 指揮, 大砲, 飛行機와 攻擊에는 조호나 艦의 指揮, 上部甲板에는 아일랜드型이잇어서 障害物이 없으므로 飛行機와 攻擊에는 三層 飛行甲板의 長短이잇어서 艦의 어느 一個의 舷側에 잇다.

이것은 航空母艦에는 큰問題이다. 搭載한 飛行機는 大抵인것은 없고 戰鬪機, 偵察機, 攻擊機等이 적어지고 威力이잇는것이 飛行甲板에서 降下로 下方의 格納庫에 너케되어잇다 또 큰飛行機는 날개를 접어서 格納하게되어잇다. 開戰에는 船艙 雷擊機에 飛行機의 修理工場 飛行機製作所와 조금도 다름없이 되엇다.

× ×

그러면 이 航空母艦인데 母艦에 서 飛行機를 掃除해버렸다고하면 航空母艦自體는 威力도 아무것도없고 攻防의 모두까진것이다.

그러므로 敵에게서 攻擊을 받을때는 洋上에서 가장 헤리한 航空母艦을 攻擊하는지 또는 航空母艦에 大損失을 주어서 飛行機가 뜨지못하게되면 空軍全體을 받을 근심은적게된다.

그反對로 攻擊할때는 海軍主力을 뒤우고잇는대로 敵의近海로가서 [illegible]

洋上에서 航空戰艦이 서로싸울때는 航空母艦에서 날러나온 飛行機는 空中戰을 演出할것이나 航空母艦은 海軍主力艦隊와 同一行動을 取하지 못할때가잇다. 그것은 母艦에서 飛行機를 날르게할 必要가잇는까닭이다.

即 飛行機는 風에 向하야 上昇하고 風에 向하야 下降着陸, 着艦하는것인데 이것이 넓은 飛行場이면 東西南北에 어느方向으로도 自由로 着陸할수잇으나 航空母艦이면 그렇수가없다.

何如튼 艦의 飛行甲板은 飛行場과는 比較할수 없을만치 狹小한것이므로 出發時에는 바람에 向하야 艦이 大速力으로 나아가다 그때 飛行機는 風에 向하야 날러서 滑走距離를 짧게해서 뜨게되는것이다 또 着艦時에는 이와 反對로 바람의方向을 大速力으로 突進하는 母艦의 甲板에 이것도 바람의方向으로 날러서 될수잇는대로 滑走距離를 短縮하야 停止하게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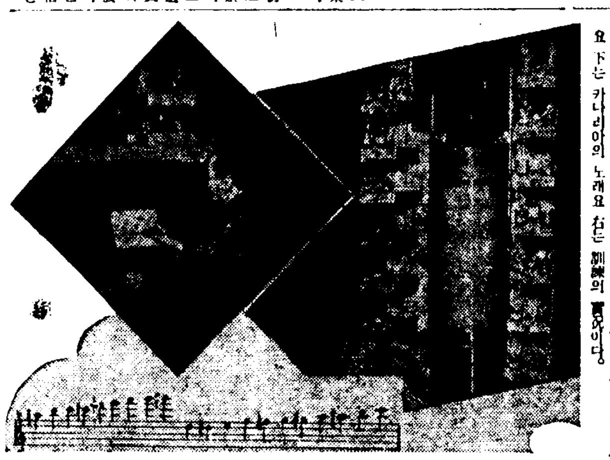
그러므로 만일 主力艦隊의 가는 方向이 風下이면 航空母艦은 이와 反對方向으로 가게된다. 即 單獨行動을 取하게되는것이다.

實戰에서 이와같은 境遇에는 勿論 巡洋艦을 붙이는 戰鬪艦이 同一한行動을 하게되여 飛行機가 없는 艦의 軍艦으로서의 威力은 實로 貧弱한것이다.

× ×

以上과같이 海上에서의 航空攻撃은 航空母艦을 主力으로하야 [illegible]

英, 米國等이 「海防은 防空의 根本」이라고하는것도 理由가 여기잇다



「카나리아」의音樂學校

獨逸 하르쓰山中에 잇는 안드레아스부르크村 學의 나래스트에는 카나리아에게 特殊한 노래를 가르키는 訓練을 하는 「몰·푸다—」氏의 奇妙한 音樂學校가 잇다. 生徒는 勿論 카나리아인데 그 敎師는 金屬性 시린다—속에 들어잇는 키높은 細製파이프로 서가서 흘러나오는 멜로디를 傾聽하고 生徒들은 一齊히 노래하는것이다.

寫眞은 카나리아의 敎室인데 左는 새소리를 譜로 적는 포나—氏요 下는 카나리아의 노래요 右는 訓練의 實況이다.

吉鎭燮小品展
明十五日부터 樂浪파라에서

오는 十五日(日曜)부터 二十二日까지 八日間 市內 長谷川町 樂浪파—라에서 洋畫家 吉鎭燮氏의 小品展이 開催되리라 한다.

西洋畫의 吉鎭燮氏는 이미 鮮展에서 相當한 認定을 받고 잇는 畫家이나와 氏는 現在東京에 잇어 모든 困苦와 싸워가며 美術道에 精進하야 同會의 一員으로 中央美術展 白日會展에도 入選되엇는바 이번에 同氏 李順石氏와 同友人의 斡旋으로 行와 如히 氏의 近作小品三十餘點으로 展示하고 또이를 現場에서 即賣하야 氏의 精進에 必要한 畫具나마 맨들려하는것이라는데 一點의 價格은 十圓으로부터 四十圓까지라 한다

華耕舍雜記 ④
二月初하룻날
沈熏

二月初하룻날은 머슴의 설날이라 한다. 남의 논마지기를 얻어하거나, 밥술이나 먹는집의 머슴을 해서 農軍의 生活을하는 그네들이 一年에 한번 실컨 먹고 마시고 마음껏 뛰노는날이, 이 二月初하루다.

아침부터 밤이 이슥도록 아래웃 마을에서 징, 꽹가리, 새납, 장고같은 풍물을 불며 뚜드리는 소리가 끈임사이 없이 들린다. 그네들이 두레를 노는 光景은 非常히 緊張하며 中에도 懷擬하는것이어 볼 하지만, 아직도 눈이 볼을 헤치고 지내기 이미 滿三年이나 되엇건만

이 窮僻한 海邊山村에 數間茅屋을 짓고, 罪없는 거양살이를 하는 憂鬱한 孤寂과 벗을 삼을수밖에 없다.

◇

리는 나에 孤寂이래서 終日을 외롭게 들리면서, 바람결에 가끼, 또는 꽃소리가 들으면, 마을을 떨리는 그 소리를 들으면, 마음이 郷土的情緖에 사로잡히게 된다. 그러나 낮에 그네들이 列을지어 農樂을 노라에 그러보면, 나사이 굿판은 그 굿판이 맵서보다, 이 興이 오른것을 앞에 [illegible]

다. 비록 「囉哩嗹哩羅哩」일 망정, 山歌와 村謠나마 들리오서, 두레스군들과 얼리나니 마음이 사람도 얼어붙고, 춤추는 흉내도 내어보앗다.

첫해에는 누데기를 벗지못한 머슴군들이, 현옷벙이 패랭이를 쓰고 고깻짓을 해서 갓 상무를 돌리며, 胡笛가락 꽹거리 長短에 拍節을 맞추는 하는것이며, 신명이나서 깨구리처럼 뛰노는것이, 南洋의 土人部落으로나 들어간듯, 野蠻人種의 풍물같이 보였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두레는 農村娛樂으로 웠지 못한것같이 생각이 되엇다. 출어 뛰기를 크게하고 新鮮味있게 놀도록 指導, 奬勵하고 싶엇다. 그러나가 수年에 외서는 두레를 보는 觀衆이 變해섯다. 朝夕으로 맞나고 사이조케 지내는 아래웃洞里가, 合하기만 하이면 받것이 是非가나고, 是非끝에는 싸움으로 말을 마춘다. 그것은 有識無識間에 두세사람만 모여도 사도리거러고 合心團結이 되지못하는 朝鮮놈의 本色이라, 싸입머리가 앞가도 하려니와 한편으로 도리켜 생각하면 가엽기가 짝이 없다. 배를 실컷 불리다는데 남집집으로 들아다니며 얻어먹은 것이라고는, 깍해야 막걸리 두나 뺨대가리에 도야지죽같이 쌀에 한마간리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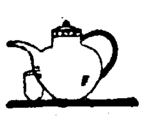
平素부터 營養不足에 걸린 배통은 그나마 걸신이 들린것 처럼 그 술을 마시고, 결신이 들린것 처럼 그 거친 飮食을 어거어거 틀어넣는다. 그러고는 온종일 뛰 드리고 명들면서 온洞內를 돌아다니고나니, 「일흘」기운은 그네들의 膓腑와 脾胃의 神經을 刺戟시켜서, 醉하고 醉하게 한다. 대 문속이 되도록 醉하고 나니, 대수정지 안흔 입에 都城이 되고, 平素의不平이 爆發되면 破邪의 싸움까지도 誘出하게되는것이다.

◇

오늘저녁에는 西便거리에서 그런 光景을 보다못해서 달려가 뜯어 말렷다 몇%밖에 아니되는 「야 좀 기운을 이기지못해서 무슨이 만남을 한것처럼 개개 틀어서는데 시처 쓰러가면해도 피가 솟아지는 그네들의 肉體는 누워서 만 러매진 北魚를 틀에다 틀려 노것 같다.

그러나 그네들의 血色없는 얼굴은 「우리에게 肉體와 精神의 營養을 달라!」고 부르짖음을 모른다. 自己네의 貧困과 無智를 아직도 八字탓으로만 돌릴뿐.

오오 形骸만 남은 百萬, 千萬의 宿命論者여! 그대들은 언제까지나 그 宿命을 짊머지고 살려는가? 中樞神經이 말러 않은채로 그 누구를 爲하야 代代孫孫이 이땅의 무더기노릇을 하려는가?



話題

百五十年囚의 出獄
【西班牙首都발려드로】刑期百五十年인 罪人이 出獄하엿다 하면 매우 長壽한 사람인줄로 알는지 모르지마는 實상은 服役三十年을하고 남은 刑期百二十年을 減刑받은것이다. 何如間 意外의 殺人과 減刑의 音에는 果然 南歐 의 스페인이라 다르다고 놀랠밖에 없다. 이 罪人은 예전에 스페인에 서 有名한 山賊페피—노로 아이 때부터 山賊에 參加하야 各地에서 掠奪, 殺人을 한거되에 도바地方에서는 이름만들어도 우는 아이조차 울음을 그친다고 하리만치 무서워하엿섯는데 一九〇六年 憲兵을 만나려고 鄕里에 돌 린것이 亡運이엇든지 官憲에게 逮捕되어 裁判한結果 百五十年刑 의 宣告를받고 爾來今日까지 三十年間平穩生活을 繼續한것이다 그러나 그의 平穩生活은 그의 前半生에比하면 全然 反對로 매우 安穩하야 숨은生活이되엇으므로 이번에 特赦를받아 나오게된 것이다. 百五十年刑이므로 全然 聖化될수없었드면 監獄에서 한평생을 지안흔이出獄가그도 꿈이나아닌 가 하며기뻐하엿다한다.

빠라질에서發明懸賞

最近빠라질에서온 情報에依하면 빠라질政府로는 兩國의 特產品인 松의 一種에서 樹液採取하는 機械의 發明者에 對하야 四千弗을 提供하겟다고發表하엿다. 이 樹는 빠라질特產으로 南米에는 廣이나게분데쓰는 獨特한것임에도 不拘하고 現在에는 原始的方法에 依하야 產出하고잇는것인데 무슨 機械的方法으로써 樹木으로부터 採取하도록하자는 目的으로 入賞者의 特許權은 大統領에게 提供할것이라는 條件이붙어잇다 朝鮮의 發明家도 생각해봄이 어떨까.

奇術師
柳致環

奇術師!
그대는 부채끝으로 고흔 噴水를 짓게고
비바람같은 拍手속에 나타나서
빈 손으로 수하고도 적자의 紙貨를 부어내되
그대는 입조기 그대의 奇蹟에 對한
그 壯麗한 喝采에 醉한 적이 잇으며
그대의 입에 윈 넣으로 信念을 說得한 적이 잇느뇨
어떤 傳說하는 恩寵도 그대더러
몰로써 떡을 맨드라! 試驗하지 안헷으며
한 熱心한 追從하는 갈맷리야 사람도 업엇거늘
集으로 도라가서 호롱로 문살을 후두머니 바라볼때
生活에서 오는 조고마한 어떤 慘怨와 또는—
貴의 缺點같은 어찌지못할 마음의 苦惱를
그대는 어떠케 處理하는가
아 나도 한 奇術師어니
僞善으로 愚衆을 瞞着하고
어떤 網羅도 眞實을 欺瞞할수 잇으되
외로운 異邦者처럼
어느듯 이러케 늙고 파리하게 야위엇느니라

各校入學須知 (8)

◇明倫學院
(京城府三淸町五三)

本科
一、人員 給費生十名、自費生若干名
一、資格 普通學校卒業程度又는中等學校卒業程度
一、科目 國語、漢文
一、期日 四月九、十日
一、出願 四月五日限

硏究科
一、人員 給費生十名、自費生若干名
一、資格 同學院卒業者又는檢定試驗合格者
一、科目 漢文解釋、漢文作文
一、期日 四月七、八日
一、出願 四月五日限

◇順安義明學校
一、人員 甲組五十名、乙組廿名
一、年限 五個年
一、科目 國語、算術、口述
一、試驗場所 同校、京城東明學校
一、期日 三月廿五日
一、出願 三月廿日
(受驗料一圓)

白鳥漂流記 (20)
尹白南 作
李靑田 畫

二、캄캄한길 (五)

백련은 문과 창틈으로 기어드는 독한연기에 배에 떰이 불붙것을 짐작하고 문앞에 막어노흔 기구를 치어제치기 시작하엿다. 그러나 그것은 기구를 옮겨다 노흘때보다 힘이들엇다. 왜 그러냐하면 문틈으로 기어드는 연기 일망정 독하기 짝이 없어 눈사실 을 찌프리고 숨을 참어가며 하노라니 일도 손쉬지 못할뿐 아니라 힘이 곱이나 들엇다.

이윽고 기구를 죄다 치어버리고 밖으로 뛰어나가랴고 먼저 문을 반쯤 열어보앗다.

그랫더니 기붕같은 연기가 화 몰려들어와서 백련의몸을 쌋다 원체 이러한 경우를 당해 보지 못한 그라 허리를 굽히어 기다 싶이하고 선실을 나섯더면 큰고생을 하지안고 나왓수 잇엇을것을 뻣뻣이 선채로 나오려하다 가 코로 입으로 만껏 연기를 드리마시고보니 숨이 콱 막히고 눈을 뜰수없어 엄칫에 문을다시 콱 다처버리고는 몇거름 옴겨노치못하고 업드러지고 말엇다

선장 「페-쥐」가 문을 박차고 선실로 뛰어들어온때가 마침 이때엇다.

선장은 늙어이 튼튼한사람이라 방으로 뛰어들어 거이정신을 일코 업더저잇는 백련을 둘처업고 빨리 갑판으로나서서 뱀이 생어 올으는 반대편으로 뛰어가며 소리를 질럿다.

누구를 보고 한것도아니고 무엇이라고한것도 아니엇다 외마대 소리를 질러 배를 에어싸고 잇는 조선군사들의 주의를 환기하고 두번째에는 그네가 알어듯던 듯 라틴던 자기의말로

「거루(배)를 대주」

하고 외치는것이엇다.

이 광경을 바라본 이편 배에서는 양인의등에 엄힌것이 백련이란 처녀인것을 알아보는사람이 잇어

「저 처녀를 구해내소—」

하고 소리를 치자 누가먼저 맏음 냇는지

「백련이 백련이」

하는 소리가 이때에서 저때로 옴겨지엇다.

그러든중에 욕하스런 거루(배)는 독하게이 「사—만」호 선복을 한하야 노를 저어 달려가서 사다리 끝에 까지 나려와 선「페-쥐」와 백련 을 안어나려왓다.

이리하야 백련은 구사에 일생을 얻엇고 선장은 사로 잡히고말 엇다.

× × ×

이날 대동문안 백련의 당숙모 되는 선붕이머니집에서는 백련이 밖으로 숨엇이 나간지 엄마이니 되어서 최오라바닌처럼 이러난양 인 라탐조롱에 대문을 꽉꽉 잡그 고 방시구석에 드러엎드려 잇엇다.

선봉아버지도 밖에 출입하러로 아직 도라오지 아니해서 몸시 굼굼은 하지마는 그래도 그는 어른의몸이라 마음이 노이지마는 나 히보다는 숙성하야 누가 보던지 탐을 내게된 백련이가 도라오지 안는것이 몹시 궁금하고 불안하 엿다 철없이 구경꾼틈에 끼어 잇 엇다가 무슨 봉변이나 하지안헛 을가.

그런생각을하면 할수록 벌반망 상이 다 어러나서 초조하기 짝이 없엇지마는 밖에선 총소리 아우 성소리가 나고잇는판이라 속은조 리면서도 다시 쪼연을못하엿다.

그러자 밖앗소요가 좀진하여지고 이번에는 아우성소리가 나긴나도 대동강변에서 이러나는것을 듣고 전으이 맘이노혀서 밖으로 나가볼 생각을하고잇는판에 누가 대문을 지긋거린다.

「백련이냐」

하고 선봉어머니는 무서운중에도 반가워서 소리를 빼질러 불러보 는것이엇다.

「아뉴 어서 문좀열우」

「난 뉘라구」 감숨이 어머니로 구만」

「어서 좀 열어요 무엇해」

「가만잇소 채 신발이나 신어야 지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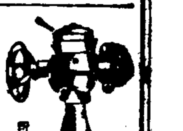
하고 선봉엄마는 허둥어둥 대문 시간으로나갓다.

이런때에는 이웃사람도 새삼스 러이 반가운것이엇다.

貿易ロデパートに小売店に
高級萬年筆
店印捺印者限 最新原色版カタログ進呈
取引銀行 住友銀行玉造支店 三和銀行玉造支店
シーズン・イーズ・及ビ指定マーク入 萬年筆製造本舖
辰己製作所
大阪市東區山之下町一二九 電話東94・六〇四三 振替大阪七五三七〇

天賦의福音
皮膚病에
꼭 쓰지안흐면안될
六一〇ハップ
皮膚病이가잣 全快되는 天下에 定評을 밧는 六一〇ハップ는 化學上 獨特의 方法에 依하야 製造된 比類업는 皮膚病의 特效藥으로 各種皮膚病에 卓越한 效能을 가지고 잇습니다.
六一〇ハップ의特徵
六一〇ハップ는
△皮下深部까지 잘浸透하야 病疾인 이러한 皮膚病菌을 顯著하게 殺滅식히는 作用을 가지고
△體內에 잇는 毒素를 體外로 排出식힘으로써 病源을 根本的으로 驅逐하며
△身體에 自然的으로 賦與된 疾病을 自癒하는 機能을 活潑케促進식힙니다.
그럼으로 이런 三大作用이 相俟하야서 迅速하게 疾病을 根治하는것입니다.
六一〇ハップ試用直席見効
모기, 벼룩, 빈대등의 도 即効
△主治効能
옴, 무좀, 옴부습진, 마른옴, 腫氣, 땀띠, 其他皮膚病, 痔疾, 胃腸病, 婦人病, 神經痛,
◎洗面에 二三滴쓰시면 얼골의 살갈이 고와지며 ◎婦人의 月經에도 만히 使用합니다
◎沐浴물에 너어쓰시면 血液循環을 잘하고, 精神이 爽快하여지고, 身體도 더욱 튼튼케되며 藥少하더도 實用으로 經濟입니다
新界의 權威
皮膚科 內科 小兒科 [illegible]
詳細히 적어잇습니다.
發賣元 名古屋 武藤鉦合名會社藥品部

朝鮮電球販賣株式會社 配給所及連鎖店募集
朝鮮電球販賣株式會社는 東西電球株式會社의 朝鮮잇는 販賣會社입니다.
東西電球株式會社는 我國電球製造會社의 精銳十四社가 合同하야 製造로, 販賣로, 統制되어 創設된 一大會社입니다. 더욱詳細한 說明書는 配給所又는 連鎖店希望者에게는 申込次第郵送합니다
朝鮮電球販賣株式會社
京城本町二丁目十七(電話本局・三五五番)



돈버는大王 리-도式 製麵機
五合의米와옥수수가 八升의菓子가된다
大阪市 東成區 森川 製作所 [illegible]

家庭

불면증은 웨 생기나
원인과 치료방법 (2)
머리를 만히쓰는이는 잠못자고 근육노동을하면 잠이잘옵니다
◇…趙憲泳

一、어린애의잠

젖먹이에는 거의 젓먹고 자는것이 일입니다. 어린애수록 수면시간이 길며 소년기까지는 불면증이라는것은 없읍니다. 불면증이란 청년기이후의 병입니다. 그이유는 어린애는 [illegible] 성장발육(成長發育)에 전력하기때문에 생리적으로는 가장 왕성한 활동을 하는것이며 따라서 피로도만흔것입니다. 그러나 정신적활동은 활동이 극히단순하고 유치하고 미약하기때문에 [illegible] 만히흐르게됩니다.

二、살찐이의잠

살이찐사람은 정신적활동이 대단히 적은편이 많습니다. 다시말하면 정신생활에 있어서는 내용이 대단히 빈약한것입니다. 현재에 수동성(受動性)이 풍부하며 맘이서 현실에 어느정도까지 만족하야 그러케 분나는일도없고 그러케 걱정되는일도없으며 이상(理想)에 불타오르는일도없고 [illegible] 감정도없고 진리(眞理)를 탐구하라는 사색적(思索的) [illegible] 리에 집중할필요가 없고 그반면에 육체적으로는 영토(?)가 [illegible] 무한하고 [illegible] 피로하기 쉬우며 [illegible] 잠이만흔것입니다. 정신적활동이 극히적고 [illegible] 관이 잘 소화되 [illegible] 잇기때문입니다.

三、밥먹은뒤잠

귀찮게 과식(過食)한다음에 음식을먹으면 十분이 못가서 눈이 사르르 감기는것은 누구나 다아는일입니다. [illegible] 이때는 날리가 [illegible] 그자리에 쪽으러지지 안을수없을것입니다. 이것은 [illegible] 하기위하야 [illegible] 지(下肢)의 피로 [illegible] 하기위하야 음식을 소화 [illegible] 입니다.

四、뇌빈혈(腦貧血)

기분이좋게 [illegible] 운동을 만히한 다음에 [illegible] 음식을 만히 먹고 또 [illegible] 하야 시간의 여유를 두지안코 [illegible] 뇌빈혈이 생기며 그후에 잠시간 수면상태를 계속하는것이 보통입니다. 목욕을 하고서 (?) [illegible] 서머리로 피가못가게하면 일단 수면상태로 들어가 가지고 [illegible] 어나며 [illegible] 상(外傷) 기타 [illegible]

五、방사후숙면

[illegible] 방사후에는 대개 성적기능이 [illegible] 숙면을 [illegible] 잇는여자가 [illegible]

잠은왜밤에자는가

[illegible]

모성애를찾어서
원숭이 (一)

사람은 동물중에 가장 [illegible] 잘하기잇읍니다. [illegible] 젖을 [illegible] 가는 말하시마는 오늘부터 소개하는 무성애는 [illegible]

밤이면 본능적으로 새끼를 사랑하는 모성애를 찾어서 소개해보렵니다. 동물의 왕인 사자, 호랑이부터 아래로 도야지, 닭에 이르기까지 [illegible] 한 다른 모성애가 잇는것이니 [illegible] 러분앞에 보여드리려 그모양과 동작이 사람에게 가장 가까운 예표가라고 할만한 원숭입니다.

사진은 런던동물원에 잇는 원숭이 [illegible] 니 얼마전 [illegible] 새끼가 무엇인지 [illegible] 음식을 먹는모양인데 [illegible] 게 [illegible] 보 뜨거운것을 식혀 가면서 먹이는광입니다.

성숙기의생리학 (四)
따님을다리신어머님께
정신상타격

[illegible] 언제 오겟다는 예고가없이 올때가되면 아무때나 오는 생리적 현상인고로 언제어디서당할지를 모르는것입니다. [illegible] 어머니나 언니와 의논도할수잇는것이지마는 외출중에잇거나 학교에갓다가 [illegible] 정신상타격을 반아서 [illegible] 안하는 [illegible]

◇

어떤경우에는 [illegible] 경하게 [illegible] 정신상감동이 [illegib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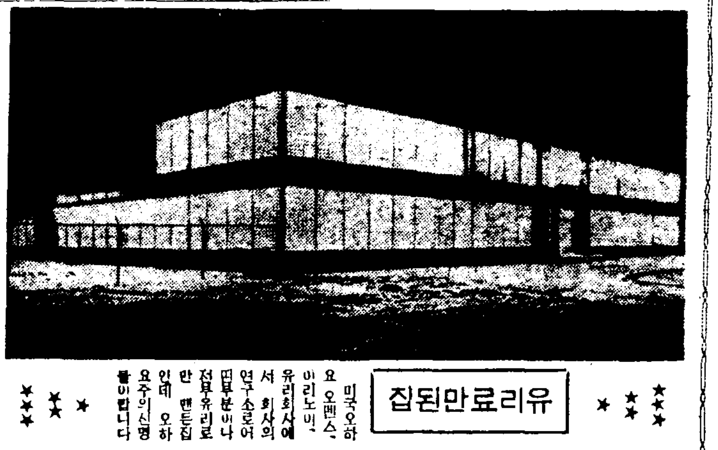
◇

그런데 누구던지 첫월경은 갑작이오는것으로 생각하지마는 미리오는것입니다. 아래배가 [illegible] 차서 무엇으로 나리눌르는듯한 생각이나게되면 [illegible]

정리파시디시대 [illegible]

[illegible] 조로 보이도록 하였읍니다

[illegible] 월경중에는 [illegible]



★★★ **유리로만된집** ★★★

미국오하요 오렌스·이리노이 유리회사에서 회사의 연구소로 서 전부유리로만 맨든집인데 오하요주의 신명물이랍니다.

가리레오·가리레이
科學文明의선조 (下)
李東民

가리레오·가리레이는 추담은 하나도 없어 [illegible] 오는 그러지않어 [illegible] 대는 밋고 질문하는 [illegib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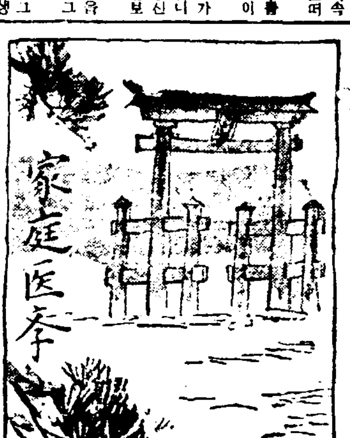
[illegible] 「선생님! 나는 그러치안습니다」 [illegible] 보니까 그러치안습니다 [illegible] 가리레오는 [illegible] 성군이엿읍니다. 하생들은 「가리레오」를 [illegible]

그어른는 一千五百六十四年二月에 [illegible] 태리 피사란 곳에서 나섯읍니다. 아버지는 그당시 이름난 음악가(音樂家)의 수학(數學)의 대가(大家)며 [illegible] 정사(?) [illegible]

[illegible] 그가 [illegible] 아리스토-를 [illegible] 러트리면 무슨 [illegible] 무게가 [illegible]

[illegible] 가리레오는 [illegible] 아리스토-틀의 [illegible]

「胃卽腦」라고할만치
胃腸과腦神經은깊은關係
頭腦를쓰는분은操心하라



胃腸과腦神經과는 直接連絡되어 잇는 [illegible] 相互間影響을 [illegib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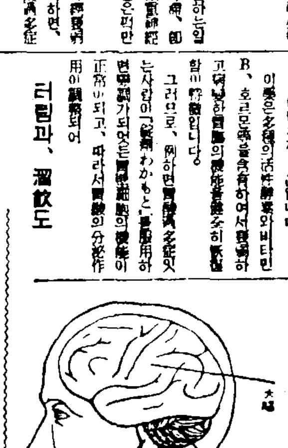
그러한胃腸病이

[illegible]

또腦의障碍도

[illegible]

試驗工夫의 疲勞防止
頭腦의明快에有益한食物



慢性胃弱의原因

[illegible]

血液

[illegible]

成分

[illegible]

食慾이增進하야

[illegible]

活動力增進과 疲勞防止

[illegible]

過度한工夫로 因한胃腸病
（栃木）塚本浩

[illegible]

中等專門各學校 入學試驗問題
其四 培材高普

國語科（第一日）

一、次の文の片假名を漢字に直しなさい。

踏切の(1キケン)□は、近い所では三百メートルにも足らぬどんな小さな物でも電燈の□に[illegible]ねらひすました(2シャゲキ)□でぷしつとやられる[illegible]夜は夜で、怪しいと[illegible]照明燈を[illegible]あたり一面(3イヒル)□のやうに照し、(4キクワン)□の[illegible]を浴びせるのだ。

二、次の言葉のわけを書きなさい。

イ、金光一閃　ロ、終始一貫　ハ、一日千秋　ニ、[illegible]

三、次の文中の——をつけてあるところのわけを書きなさい。

[illegible]

四、次の御製を拜誦してどんな心がおこりますか。

[illegible]

（第二日）

一、左の語に讀みかなをつけなさい。

イ、愛想。ロ、日和。ハ、行燈。ニ、版木。ホ、一切經。ヘ、蕎麥。

二、左の語を使つて短文を一つづゝ作りなさい。

イ、とんでもない。ロ、うつかり。ハ、はやしたて。ニ、くつきり。ホ、没頭。ヘ、[illegible]

三、左の語にあやまつた字があるならばなほしなさい。

イ、復雜。ロ、不思儀。ハ、[illegible]。ニ、危險。ホ、栽培。ヘ、[illegible]

算術科（第一日）

1、次ノ式ヲ計算シナサイ。

[illegible]

2、次ノ式ヲ小數第二位マデ計算シナサイ。

$\{39\times4+(32.78-(32.4-4\times6)\times3)\}\div0.25$

3、0.06ヲ分數、パーセント、歩合ノ三通リデ表ハシナサイ。

4、或數ニ3ヲ加ヘソノ結果ニ5ヲ掛ケ又ソノ結果ヨリ15ヲ引キ又ヲ11デ割ツタノニ商ハ13デ餘リハ7デアル、元ノ數ハ何カ。

5、長サ25m幅10mノプール（水泳場）ニ1.5mノ深サマデ水ヲ充タソウトスル、1秒間ニ40リツトルノ割合デ水ヲ注入スルナラバコレヲ充タスニハ何時間何分何秒カカルカ。

6、[illegible]ノ鐵橋ガアル。[illegible]汽車ガコノ鐵橋ヲ通過スルニ1分カカツタトイフ汽車ノ長サハ何程カ

7、電車ノ速サト人ノ歩ク速サノ比ハ[illegible]

8、[illegible]

9、[illegible]

10、或船ガアツテ河ヲ上ル速サハ[illegible]、下ル速サハ每時間3kmデアル、コノ船デ河ヲ上下シタノニ[illegible]何kmノ所マデ往ツテ來タカ。

（第二日）

(1) 甲5本ト乙3本トノ價ヲ合セタラ41錢デ、各1本ノ價ヲ合セタラ9錢デアルト云フ、各1本ノ價ハ幾ラデスカ。

(2) 甲ハ或仕事ノ⅓ヲスルノニ15日カカルシ、甲乙共ニ其ノ仕事ノ⅔ヲスルノニ4日カカルト云フ、コノ仕事ヲ乙一人デ仕上ゲルノニハ何日カカルカ。

(3) 林檎800個ヲ100個ニツキ18.75錢ノ割合デ仕入レ、ソノ中一割ノクサレヲ見積ツテモ、ナホ全體トシテ二割ノ利益ヲ得ヤウトスルニハ10個ニ幾ソノ割合デ賣レバヨイカ。

오디라

三月十四日(土)

▼六時 이야기(童話) ABC 金汶植
▼六時廿五分 [illegible]時間「國語」
▼七時卅分 時事解說「最近의[illegible]」
▼八時 唱劇 春香傳中「獄中」 [illegible]
▼八時四十分 歌謠 (一)春眠曲 (二)換父詞 金玉仙 徐山玉 金永根 金一宇
▼九時 [illegible]「大人漫畫」 (第二部) 申不出
▲午後八時(名) **第一放送** コドモ日本史[illegible]

三月十五日(日)

[illegible]

三月十六日(月曜日)

[illegible]

無代進呈
藥店에
[illegible]

ClibPDF - www.fastio.com

躍進! 躍進! 斷然 빛나는 三月號이다

新東亞 三月號

韓末政客遺墨襍攷
石谿學人

글읽는 學徒에게 한幅書畵는 아름다운 빛이되며 한두個의 古珍이 또한 雅趣아님이 아니지라 書畵、骨董이 비록 貴重의 時勢를 따름이 오늘날의 일이나 때로는 誠과 애씀이 오히려 黃金의 威力을 이기나니 더구나 國의 民治에 關與한 政客들의 遺墨을 모듬이 一라。筆者 이 方面에 蒐集을 뜻하야 韓末政客의 遺墨을 여러點 모흔것이며 이에 對한 解說과 寫眞은 貴한 參考가 될것이다。

朝鮮文化의 海外에 끼친 貢獻
金庠基

硫安價暴騰과 農村의 對策
金聲遠

異文化의 史的考察
李仰默

明治初의 私立學校
崔承萬

中國의 學生運動……丁來東
滿洲旅行과 나의 所見……全武吉
蘇聯邦 파스타하좁흔메도드……洪曉民
最近獨逸의 政界……白南教
맥도날드 前英國首相……洪翼範

評論家로서 作家에게 (第一回)
朴花城女史에게
韓曉

우리文壇의 한 異彩인 朴氏를 解剖하야 그의 人物을 論하고 作品을 檢討한 快論文。韓氏의 評家的態度는 이 一文에서 보다 더 빛난다。

英詩鑑賞의 第一階段
李亨雨

獄窓을 싸고도는 史話
雲林

甲午는 只今부터 四十三年前이다。이해 八月에 日淸戰爭이 開戰되어 얼마아니 싸우다가 天津에서 北洋艦隊가 沒落되고 淸國이 敗한後 馬關條約에 朝鮮의 獨立을 承認하게되엇다。그리하야 朝鮮은 甲午年 八月十三日에 五百年間 내려오든 옛적 規模를 버리고 새로히 內閣制로 改定하야 議政府、宮內府와 八衙門을 設置하고 主上殿下가 大君主陛下로 改稱되고 同年十二月에 獨立誓告文이 나왓으니 이는 獨立門을 建築한 原因이 되는것이다。

生殖泌尿排便의 異常과 漢方療法
趙憲泳

玄海灘건너 螢雪功 싸흔 四百餘卒業生 芳名

領土再分割論
李如星

文藝時評
朝鮮말과 이알리즘의 探求
李鍾洙

教育四題
極熊

그리운것

그해三月과 그女子……최봉숙
病床과 女人……金光洲
三月과 그女人……韓仁澤
봄을그리는 女人들……柳致環
너무나 寂寞한 追憶……金朝奎
三月과 女人……안회남
監房의 三月과 새……鄭遇尙
南海孤島에 남긴 追憶……박아지
어렷슷한 그의얼골……진무길
昌慶苑의 夜櫻……洪曉民
同乘햇던 그女人……宋鎰
그해 三月 女人……朴順松

詩壇 (苦論壇)
無號生

入選笑話十題

그대들에게……金尙鎔
新人……朴芽枝
不安……李燦
客舍……金光洲

나의 苦衷
宗教家로서의 苦衷……申公淑
學校教員으로서의 苦衷……李一

時事短評
仁王山人

三月의 女人
漫文漫畫 崔永秀

一九三五年노ー벨化學賞獲得者 쪼리오夫妻……金鳴善
新聞經濟面은 어떠케 읽는가……全弘鎭
世界動向……高永煥
時事日誌
經濟解說

創作小說
林檎 韓雪野
그들 李孝石
惡魔 安懷南

이해의 달의 回顧
逸民

趣味室
毛髮을 百萬倍하면
統計室
外國時事漫畫
世界珍聞
지성이면 감천 漫畫
망신 洋服쟁이 漫畫
文藝二千字노트

時事漫畫……洪周生

우리學校 자랑
延禧專門學校 俞億兼
中央佛專學校 金敬注
梨花專門學校 金活蘭
梨花女子高普 金昶濟
中東學校 崔奎東
培材高普 辛鳳祚
五山高普 KY生
樓氏女高 梁在順

新羅花郎制度의 研究
劉昌宣

現在教育에 對한 各界人士諸氏의 批判

一. 現在教育의 短點으로 보시는 것 二. 學父兄으로서 教育者에게 하고싶은 말슴 三. 理想的으로 教育시킨다면 어떠한 方法이 잇을까。 尹致昊 李仁 珠北山人 宋鎭夏 宋昌根 崔鳳則 李鍾麟 金良洙 李瑄根 羅景錫 申公淑

誌代三十錢 送料二錢 發行所 京城光化門通 新東亞社 振替京城一四五〇〇

新家庭 三月號 發賣中

卒業生特輯號
우리家庭의 寶鑑이되는 新家庭은 날로充實!

京城光化門通 發賣元 新東亞社 振替京城一四五〇〇番

生產者自由無視의 棉花指定販賣는不可

農民膏血을 더욱 搾取하는것

慶南道會서論議沸騰

【부산】 해마다 면화판매 시기마다 각처에서 공판제도에 불평이 일어나고 잇는데 금년부터는 경남에는 면화검사제도를 시행하야 한가지 농민의 불평이 더하게 되엇다. 재래 경남의 면화공판이라는것은 공판이아니라 지정판매로 되어잇어 부산 조선방직 마산조면회사 청수(淸水) 三명에게 지정판매를하야 면화생산자인 농민의 자유를 무시하고 고혈을 착취하는 지정판매인의 횡포한 태도는 앞으로 더 용인할수 없으니 금후부터는 산업조합등 공의단체에 면화공동판매를 하게하야 자유로 어떠한 상인이라도 입찰하야 매매를하도록 하라고 윤병호(尹炳浩)의원이 지난 十二일 도회에서 제창하엿는데 산업과장의 답변은 일본내지의 잡업사의 판매에 산업조합에서 판매하는것보다 훨씬 편리하야 판매하는것이 성적이 매우 조타는 농림성의 뜻에 맞게 을 인용하야 면화를 증산하도록 적극 장려를하고잇는 이때에 자유판매를 하게할수 없다고 하엿다. 산업과장의 답변은 앞으로연리회사의 독점매매를 폐지하고 산업조합에서 매매케함이 타당하야 불원한 장래에 가서는 생산판매는 산업조합에서 통제하게될것이라고한다.

饑餓線上에우는者 勿驚! 廿八萬名

잔한으로 초근목피도 못얻어

深刻한全南道民의春窮

【광주】 전라남도내에서는 작년 년말까지에 춘궁을 극복하지 못한자가 六만六천三백十九호에 二十八만六백八十二명의 다수에 달하엿다. 그런데 이와같이 다수한 궁민들은 그이와서상에서 헤매이다가 족지못하야 한끼밥이 문전걸식(門前乞食)이라고한다. 그러므로 자기집에서 죽이라도 끄려먹는 사람들은 거지생활에서는 한참상이라고한다. 다다못하야 조석(朝夕)으로 대문을 잠그고 밥을먹게되어 잇다고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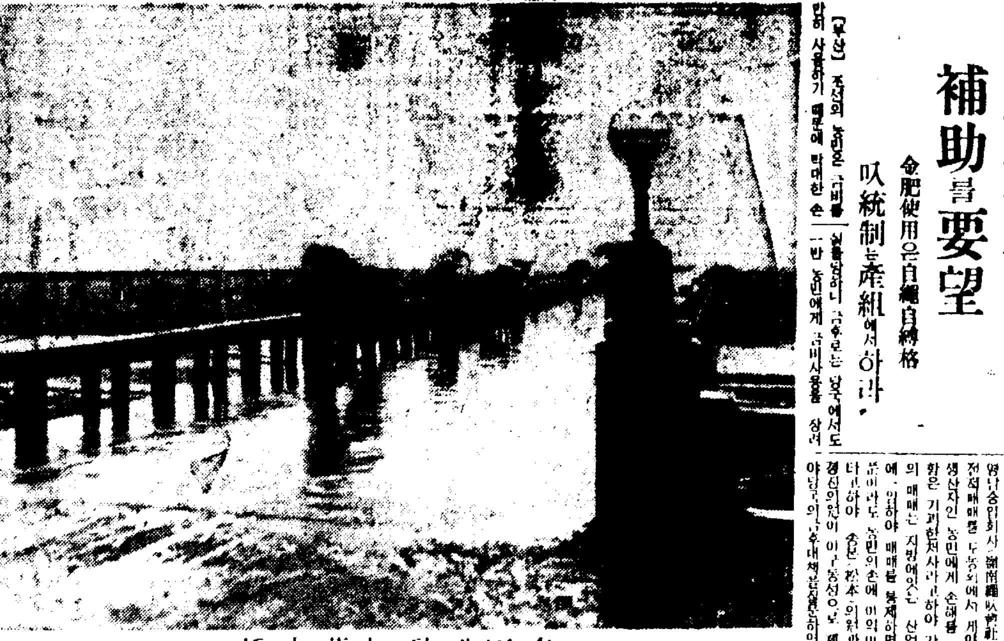
그런데 금년에는 설상가상격으로 해동(解凍)조차 속체되지아니하고 경칩이지나 요새까지도 눈이내리며 땅이얼어붙어서 그나마의 유·하박초여이며 고내하고잇든 초근목피(草根木皮)조차 마음대로 얻어먹을수가없는 비참한 지경에 빠지고잇다. 금비(金肥)의 가격은 작년에 비하야 훨씬 올라 시기는것이 시급한 문제라고 지난 十一일 경남도회석상에서 김경진의원이 금후정책을 수립하엿는데 당국자로서도 자급비료를 증산하라고 하야 상례 반당(反當) 백관이되며 비료를 생하도록 계획하겟다고 하엿다.

自給肥生產에 補助를要望

金肥使用은自繩自縛格

叺統制는產組에서하라

【부산】 조선의 농민은 금비를 남용하니 금후로는 당국에서도 한히 사용하기 때문에 막대한 손一반 농민에게 금비사용을 장려하야 야님의 금후대책을 질문하엿는데 이어서 농촌의 부업생산물의 수요높은 가마니(叺)를 부산에잇는 영남승입회사(嶺南繩叺會社)에 독점매매를 두농회에서 제하야 생산자인 농민에게 손해를 주게하는 기괴한처사라고하야 가마니의 매매는 지방에잇는 산업조합에 이양하야 매매를 통제하면 한푼이라도 농민의손에 이익이 만타고하야 송본(松本)의원과 김경진의원이 이구동성으로 제창하엿다.



春雨에 씻는 蔚山橋

決算報告에質疑 委員會議員衝突

【신의주】 평북도회제九일(十一일)소화九년도 세입세출결산보고 위원회에서 다소 불만의 점도 잇으나 결산에 찬성하다고보니 이에 대하야 정주(定州) 김의원의(金保濟)의원이 도비남비의 불가를 설명하고 예산에 (ㄴ)선四백五十원보다 일정한 실행은 승인할수 없다고 ... 이에 대한 의원의 반박이 잇어 의원회의 조사

奉天同胞의唯一機關 相扶會解散命令

침체되엇다가 부활一년미만에

燦然한歷史를남기고

【봉천】 재주동포 三만대중의 유一한 친목기관이요 여론대표기관인 순민간단체상부회(相扶會)는 가잇든바 금번경찰당국으로부터 돌연 해산을 명령하엿다한다. 동회는 거금十여년전에 창립되엇다는바 당시에는 재주동포가수천명에 불과하엿으나 모다 방랑성이 가라안지아니하야 유호도박을 일삼는자가 허다하엿으므로 그것을 서로견제하고 선도하야써 활로를개척하기위하야 한인조직기관으로 조직하엿다는것인데 그후수년간에 언적이 적지안코 소화六년九월十八일 만주사변이 이러나후 여러가지 주위사정관계로 一시침체상태에 빠저잇엇다한다. 그고 런중 작년七월경에 당지 유력한 인사들이 항상 친목기관과 민간여론기관이 업슴을 유감으로생각하고 상부회(相扶會)를 부활하야종래의 무성문이든것을 성문화하야 생존권의확립(生存權確立)호상신목(互相親睦)문화향상(文化向上)이라는 三대강령을 내걸고 회원 백여명이 모엿엇다한다. 동회의 그간 업적은 만주국에 잇어서 인문의 치외법권철폐(治外法權撤廢)후의 세금(稅金)문제 재만동포초등교육문제 각종강습회 강연회토론회 견학등등 중요한 문제에대한 여론환기며 一반문화운동에진력하엿다는바 금번 의외에 당국으로부터 해산명령이 내린것이라한다.

飲水輸送陳情 大同、大平住民들이

【평양】 평남각처의 음료수 기근은 날로 더욱 심한중 대동군고평면대평(大同郡古平面大平)一대의주민들은 견디다못하여 구급신호를 발하엿다. 대평주민들은 대동경찰서를 통하여 十三일 부당국에 진정하여왓는바 부에서도 별다른 도리가 없으므로 탱크열차를 이용하여급수할방법을 생각하고 잇다한다.

公州森林令違反

【공주】 작년중 공주군(公州郡)내에서 산림위반자(森林違反者)통계수는 아래와 같다고 한다 그런데 군내거주민으로 八할이상이 산림을 소유치 못하는데다가 작년 겨울은 미증유의 치위가 잇어서 범죄자가 더욱 심하엿다고 한다 森林令違反者二二五件 濫伐違反者二二一件 檢事局告發八二件

七十老人이 生活難投江自殺

【김해】 생활에 부대끼여 여생을넘기고 十十노인이 생활난으로 투강자살한 사실이잇다. 그는 김해군 김해읍 봉황동(金海郡金海邑鳳凰洞)정경오(鄭敬五)(七〇)로 그동안살림을 하여오든터인데 우연히 집을 떠난후 소식이 묘연하든바 지난十일에 분도(粉島)앞 강어덕에 의복버서둔것을 지나는사람이 발견하고 소관주재소에 알리게되어 시체를 수색하엿다한다.

乘客滿載한 뻐쓰가顚覆

【김이포】 지난 七월二일 오후 一시경에 평양에서자동차부(平壤自動車部)소속 뻐쓰(乘一補)가 승객을만재하고 집주하든중 화군양정면서 양리(中和郡楊井面石隣里) 부근에서 전복되어 차체가 파괴되는 동시에 十여명 승객이 중경상을 당하엿다는데 그 자세한 내용을 탐문한바에 의하면 운전수 정만호(鄭萬鎬)은 운전이 서투른 조수에게 운전을 시켯다가 마츰내 그와같이 전복된것이라는데 승객一명은 중상을 당하고 중화군군양면중(中和郡)석린(石麟里)모병원에 입원치료중인데 생명이 위독하다고 한다.

金堤에火災

損害는約五百圓

【김제】 지난十二일 오후七시경에 전북김제본정(金堤本町)김수천(金守千)상점에서 발화되어 마츰 당지소방조원의 출동으로 一시는 화세가 위험하엿으나 때마츰 간신히 진화하엿으나 전기김씨의 집에는 전소상태라 손해는 약五백원 가량이라하며 원인은 김씨의상점지공 김봉운(金奉雲)(二三)이가 불을 밧안에 피고 때여노코 깊이 잠들 자는사이에 방중방에서 불이솟아 그와같이 된것이라한다.

老總角誘引하야 結婚憑藉騙財

전후四회에 이처상당

水原署에서嚴調中

-結婚도難中難-

【수원】 늙은 총각마을 찾어다니며 결혼중매하여 수삿다고 남의 돈을 가로채어 관선시키고는 계속하여 동리 총각들을 속이다가 전후 四회에 이처상당 금액을 편취하엿다고 한다. 전남 (이하 불명) ... 내어 전기 문상성에게 관선시킨 후 어비로써 돈 (二十원)을 편취한후 계속하야 동년 봉월二十일 동군우정면 이화리(雨汀面梨花里) 송영덕(宋榮德)이란 노총각과 동리 오화섭(吳化燮)외 김위(金偉) 고용인 신인구(申仁求)란 노총각을 속이고 四五회에 四十六원 四十선을 편취한것이 발각되어 지난 九일 수원서에 체포되엇다 한다.

醜行發覺되자公謀하고 本夫斫殺한毒婦

일회기사는 사형을 구형하야

十三日新義法院公判

【신의주】 자기의 추행이 발각되는 것을 두려워하야 남편을 죽이고 간부와 함께 시체를 강에 버린 간부 김영준과 함께 (이하 불명) ... 두려워하야 전처를 세번 밧고 간부 김영준과 함께 남편이 장에 버렷스 하자고 의론하고 그 시체를 수원서에 一二十六일 새벽 四시 쯤 화경천(化京川)에 시체를 버린 사건이다.

▲江界郡化京面隣中洞 ▲同 無職 金永俊(三五)

전일 열린 이 사건에 대한 공판은 十三일 신의주지방법원 제一회 재판에서 국지(菊地)재판장 주심, 형사(刑事)양판사 배석 대삼(大森)검사입회아래 개정되어 사실심리를 마치고 검사는 최송화에게 사형 김영준에게 징역十년을 구형하엿다. 범죄내용인즉 최송화는 본부잇는몸으로서 김과 관계를 맷고 잇든 바 작년八월十九일 밤 十시경 남편이 술이 취하야 옷을 벗어 버려둔 틈을 타 집에 들어가 간부와 함께 살해한 후 그 시체를 화경천에 버리어서 방탕하는 남편을 보기싫다고 구진 한다.

群山府民의償價 三十一萬餘圓

昨年中의統計如此

【군산】 군산부민이 작년중에 반환한 상환금이 수비된 이렇 게 三十一만九천七백六十九원이라는데 이제 그 통계별로 보면 다음과 같다 한다.

▲牛 三百四十一頭 十六萬六千六百五十圓 ▲豚 七十六百六十頭二萬四百八十圓 (以下略) ▲犬 一千九百圓 ▲雞 一百六十二圓 ▲野菜及果實 十二萬八千五十七圓

"道民總意無視의 築港을中止하라"

기애기채 개획의 용황포항

黃海道會席上서論議

【사리원기자발신】 지난 十二일 오전十시부터 황해도의 도회는 계속 개회되자 인정우(印正宇)의원은 벽두부터 용당포(龍塘浦)제二기축항문제에 대하야 정시 긴급동의를 제의하엿다. 그 이유는 목전에 급무인 토목(土木) 위생(衛生) 교육(敎育) 농촌진흥(農村振興) 축항제二기공사비 약 一백五十만원의 산업(產業)은 과거 장연(長淵) 신천(信川) 사리원 사원(沙院)등지에 상수도 시설비가 부엇보다도 긴급하다는 제五十만 도민(道民)의 총의를 무시하고 나서 一부 벽지로 황해도민이 혜택을 입지 못할만한 전시 용당포 항의 거대한 금액을 기채하야 공사계획을 한다는것이데 꼿으로는 사업의계획을 철폐하라고 까지 주장하야 도당국의 답변은 꼭에도 합 해 생각하다고 하엿스나 그 의원들 중 황해도당국의 행정방침은 모순된 점이 만타고 한 다.

公州郡農村相

【공주】 해마다 파멸을 더 하는 조선 농촌에 현상이 아말로 어떠한 것 수삽을 보고 잇는가 공주군(公州郡)二만四천五백 五十七호에 二만七천五백 七十이 라 인구 수로는 자작 소작을 겸하야 一만八천여호나에 자작은 천二백七十一호에 불과하며 부직업자가 三만三천五백七十四인이나 된다고 한다. 남로심각하야 들어가는 농촌의 궁민생활궁제상태는 앞으로 어저 박두하여 오는 춘궁을 어찌나 어찌하여 지주에 기를 잡리는 소작인이 나마 어쩌하여 갈른지 농촌의 전도가 암담하다고 한다.

高原에春雪一尺

【고원】 남부에는 봄의 소식을 전하는 이때 함남 고원(高原)에는 매아니 눈화가 분분하야 은화(銀花)세계를 이루고 있었다. 지난 十三일부터 퍼붓는 봄눈은 밤새도록 내리어 약一척가량의 적설을 이루엇는데 작이래 대한 한 말이야 고갈되었던 음료수가 정우에 종부하여 지도 대소 동사되어 전염을 전하는 다소 동사되어 전염을 전하는 는 대소매도 이불은 뒤에는 다소 소생을 볼 것이라하야 농가의 기쁨이 여간 이 아니다.

地方에서 註文하실때는 여러분의 京城平壤 和信 通信販賣部로 하십시오 振替口座京城 九三六番 二一〇二番

消息

◎朱榮煥氏(朝鮮貯蓄銀行小壤支店人事) 社任人事次 去十一日本社平壤支局來訪

音信

新義州 道會議員의 對處으로 料亭은 連日 풍성풍성. 그러고도 村兄들 節約을 提唱할 데

鐵原 雄存間은 解氷으로 自動車가 不通

揚州 議政府 某氏의 瘦婦人 郭蓮出(?)은 主人은 百六十圓을 橫領逃走햇다 被遷。

保寧 青蘿面은 面長 强盜事

殷栗 面 留置場 月勢。

永興 郡校田(舊校)은 面長 面務所 面事務上 (이하불명) 別世로 廢鎖。

金海 大淸田 事務所 會社設 收入 取調中인데 不正事實이 疑惑되지 안는지。

黎明期 (67)

―(農村篇)―

張赫宙 作 / 李靑駒 畫

반 달(6)

「그러나 인척씨가 나를 실어하고 만나주시지 아니한다면 저는 여기서 살수가없어요。」

안라는 말이 묵곤고 무엇을 생각하엿다.

뜰에서 이같이 가까히 앉어서 이야기하는것이 오늘 밤이 처음이 아니냐. 이이상 더 깊이 들어가서 이야기 하여서는 뭣수 없다는것을 느끼엿기 때문이엇다.

「자 그런 너무 오래도록 저혼자서 잇지 기만 햇서요。 이담에 또 만나 주세요。」

안라는 남라게 일어서드니 그냥 거름을 빨리 해서 언덕 밑으로 나려가는 것이엇다.

안라의 자태가 몽롱한 달빛가온데 완전히 살어지엇을 때 인철이는 후유一한숨이 입어서서 가 삼벌되고 숨음데리가는것이엇다.

그의 귀에는 아직도 안라의 리지로운 말세와 이야기가 귀에서 쟁쟁하고 울리고잇엇다.

「내가 어째서 이런 곳에서 — 잇때야 남은 구도더만이 자리잡고 잇는……」

안라의 그 꾸짖는듯하는 어조는 영영 그의 귀에서 살어질것같지 안햇다.

「버서나서 다른곳으로 다라나지오」

어쩌면 여자의 몸으로 그런 무서운말을 할부로 할수잇을까?

그러나 그는 안라의 말을 고다고 이유는 안라의생각을 비판할 지식을 갓지못하엿기 그런것이라고는 생각지 못하엿다.

그는 안라가 그의서 흥결을 끼리고 결혼을 거부하는것을 생각해 보앗다.

이일은 대체 어떠케될것인가? 생각하매 두려운 일이엇다. 안라의 무서운 도덕관 아버지. 그리고 그의아버지의 노인들의 명령에 복종하엿것같지도 안햇다.

그는 난후 처음으로 그 자신이 엇은 바 인이나이이나, 동리나, 습관이나 를 비판해보는 것이엇다.

그러나 생각은 뒤끝귀워 범비어되어 정신을차리지 못하엿다.

그는 뇌우가 「여보게。책을 읽어 새롭……」 하며 독서를 권고하든것을 생각하엿다.

「책을 읽어야 되겟구나」

그는 생각하는것이엇다.

그때만치 그는 책을 읽어야 할것을 절실히 느낀때는 없엇다.

그는 복송아나무 밑을 갓다왓다 하엿다. 그는 그복숭아 나무가지에 맺은 봉오리 나무가 언덕에 나 모두 그가 여기올라 올때보든 것과는 다른 빗는것같앗다.

「그러고 생각을 깊이 해보아야지」

그는 그가 여태 그의 생활이나 동리 사람들의 일이나 생각을 한 번 꿈이라 해 본일이 없는것을 끄러이 느꼇다.

안라나 뇌우같은 사람은 생각을 하는 사람이고 뚜리하는 사람들이다.

「그러나 안라가 나를 조아하는 걸인가」

그는 생각햇다.

「그러 나는?」

그는 안라가 그보다 훨신 으뜸 가는것에 앉인것 같기는하나 친근히 할마음은 나지 아니하는것이엇다.

어째 너무 까다롭고 냉냉한것같이 느껴지는것이엇다.

그의 마음에는 하얀 여자에 대한 호기심보다 잃어나는것이엇다.

(여자도 생각을하고 행동을 하는사람이다)

그는 그러케도 느껴보앗다. 그의 어머니나 누의나 그가 알든 모든 여자가 다 그냥 막연히 살어가고 잇는것이 아니엇드냐?

다라나다니!

그는 여기서 나서 여기서 산다 여기서 죽을것 밧에는— 그러케 똑똑히 생각을 해본일이 없엇든 데 만치 무의식하게 살어 왓슴뿐이엇다.

그의 아버지가 무섭고 저물 때 수용지안케 대접하는것을 목만하게 생가기는하나 그는 그가 부스살못이 잇기나, 아버지인데 그러케 보이도록 부족하이잇기에 그러시는게니, 어떠커면 꾸지람은 받지안토록 할것인가? 생각햇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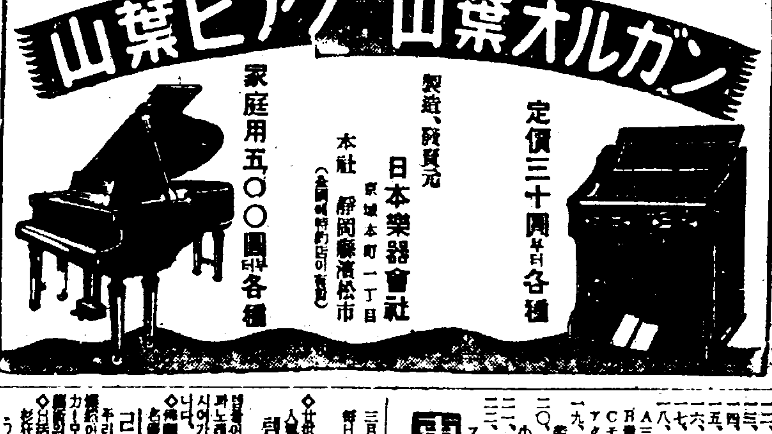
야 그런 생각뿐이엇섯다.

그러나 안라의생각과 어른은 그를 어세게 두들겨주엇것같이 놀르고 그의마음가온데 파란이생기게 하는것이엇다.

안라의생각이 올흔것이까?

그는 의심해 보는것이엇다.

오디라 一切蓄音機 平壤 府 東無線商會 電話二七四二



山葉ピアノ 山葉オルガン
家庭用五〇〇圓부터各種
定價三十圓부터各種
製造、發賣元 日本樂器會社 本社 靜岡縣濱松市 京城本町一丁目 (全國有名樂器店에 有함)

副業本業
小額의資本으로 專屬製造者急募集
[illegible]
大阪市西區本田一ノ十八 本社 千代田商事本店 電話西七三九八
營業販賣部 大阪市西淀川區海老江下一ノ五三 電話土佐堀四二六番
支店 名古屋市中區東田町四ノ一九

梅毒全治 著名靈藥 根治丸
京城南大門通四丁目 救世藥館

별표고무신 입부고 튼튼하기로 제일
京城 中央商工株式會社

명치좌 三月十四日부터三日間 大人六十錢 小人三十錢
一、平凡 ... 二、ナンセンス 三、ナンセンス 四、タンゴ ローザ 五、ナンセンス 六、ダンス 七、ヒバリ 八、ウサギ踊り 九、花嫁人形 一〇、スネータ ダンス 一一、寸劇 一二、古いラブレター 一三、小品音樂 一四、ジャズ演奏 一五、針金曲技 一六、寫眞 一七、曲藝 一八、寸劇三景 A三人共 B貴方の必要品 Cモダン樂合奏 アクロバチックダンス 一九、ダンス 二〇、新舞踊 二一、小唄 二二、落語 二三、大舞踊 フィナーレ
東洋劇場 (電光二一五四番)

團成社 (電光九五九番)
리리음 ◇鄉土色映畫 うら街の交響樂 ◇리리음
三月十二日부터 五日間 正午十二時부터 六時까지 連映
朝鮮劇場 (電光二八一番)
巴里ッ子 ◇頓馬バルーカ
あらいやアよ
유라붓갑 대극성광

廣田內閣의新產業政策

地主階級保護에서 小農主義로 轉換

農業諸團體도改革

農林

廣田內閣의 農林政策 … 一、農林行政의 根本方針

馬場新藏相의 豫算編成方針

軍事、農村費追加計上

【東京特電】 十一年度實行豫算에 對하야는 目下 大藏省 主計局에서 各省의 要求를 …

各港在米增加

百七十四萬四千石

米倉在庫米 …

商工

產業、貿易의 統制强化!

政黨功利主義排擊

京城金價續騰

賣十二圓卅錢

東京도昇騰

土曜評壇

馬場財政

株界는어떠케反映?

遞信

電氣事業及 海運業整備改善

米日爲替市況

今日의市況 三月十四日

株式 / 正米 / 期米 / 商品 / 正租

時勢와市況

株式商況

細刻

前場保合

財◇海◇餘◇波

後場休會

朝取短期前場步調

傍觀不動

積極味毫無

期米

下落

過賣反動

前場反落

後場小戾

利喰에伸悩

現下群衆賣方

어디까지防戰?

東京國債市場

實物賣買價前場

時局株買

投機株保險繁

米豆餘錄

各限倂合

○桑野取引店

木浦開況

內外金銀時勢 (三月十四日)

海外金塊 / 東京金塊 / 京城金塊

堂島前場情報

大邱下押

釜山軟化

群山反落

仁川下放

京城軟弱

各地正米商況

海外經濟

金融 / 商品

株式 期米 玉 柳來恒商店

趙俊鎬 米豆取引店 仁川

金銀白金地金賣買分析 丸福商店

期米 福